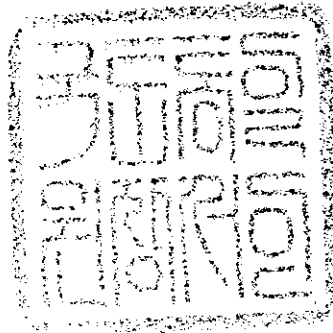


# 日本の軍國化可能性診断

1972. 5.



第 一 章 總 論

第 一 節 概 論

## 序 言

国土統一院 政策企劃室은 지난 2年동안 統一政策 立案을 위한 主要 指標로서 韓半島 情勢變化에 利害關係를 갖는 強大國의 對韓 政策을 多角的으로 分析하고 展望하는데 많은 努力을 경주해 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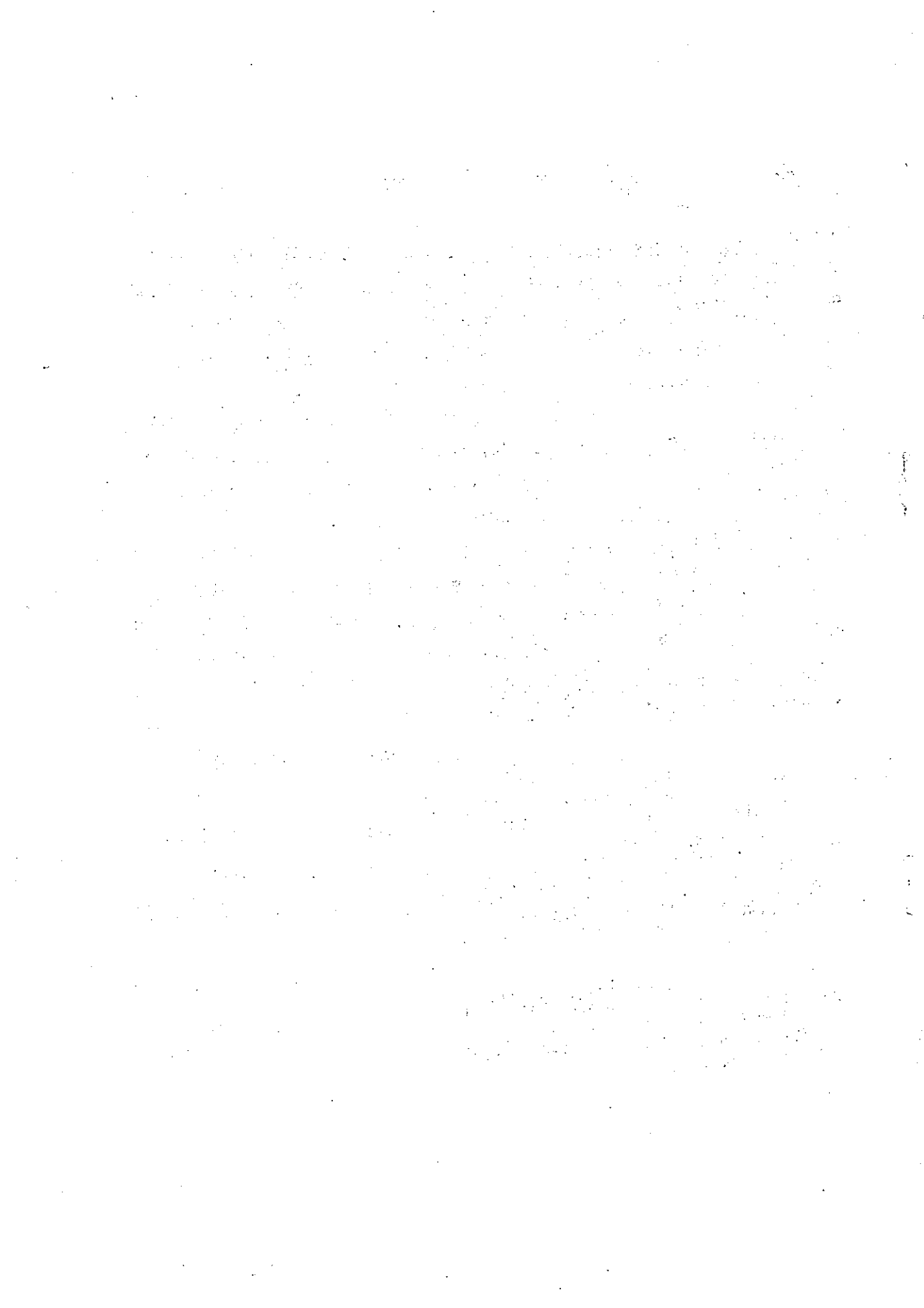
이 作業을 爲하여 國內外 碩學들이 多數 動員되었고 學者들의 眞지한 研究結果로 많은 資料들이 生産되고 있다.

本輯은 國防大學院의 金永俊 教授를 研究責任者로 하는 國防科學 分野의 理論陣이 1971年 7월부터 12월까지 6個月間 當院의 政策 研究 프로그램에 의거, 美日關係에서 본 日本의 防衛力 整備計劃을 体系的으로 研究한 結果를 刊行한 것이다.

本輯에 收錄된 內容은 日本 軍備의 實態에 관한 가장 最新의 資料를 充分히 包含하고 있지는 않지만 再軍備 問題에 관한 日本人들의 輿論動向, 日本各政黨의 安保政策, 極東의 政治構造속에서 日本 軍備가 갖는 戰略的 意味를 詳細히 파헤치고 있다는 점에서 이 分野에 관심을 갖는 政策立案家들에게 많은 參考가 될 수 있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本資料輯을 生産하는 當院의 立場에서 明白히 해두고 싶은 것은 여기에 收錄된 內容上의 日本 軍事力에 대한 評價나 판단이 當院의 情勢評價에 도움이 될뿐, 內容全體가 當院의 見解와 全적으로 一致하는 것이 아니라는 事實이다. 모든 內容과 判斷은 全적으로 執筆者들 自身の 責任下에 이루어진 것임을 分明히 밝히는 바이다.

아무튼 이 資料輯이 統韓政策 研究에 有用히 活用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分野를 研究하는 理論家들에게 조그마한 貢獻이 되기를 기대한다.



## 目 次

一 . 戰後 美日關係의 歷史的推移	1
1 . 占領時代 ( 45 ~ 51 年 )	1
2 . 講和條約의 發効와 安保條約 ( 52 ~ 60 年 )	3
3 . 安保條約의 改定 ( 60 年 )	6
4 . 오끼나와返還決定과 닉슨·佐藤共同宣言	8
二 . 美日關係의 基本性格과 問題點 및 展望	13
1 . 美日關係의 基本性格	12
2 . 美日間의 主要問題點	18
가 . 經濟問題	18
나 . 安保問題	27
3 . 美日安保體制의 將來	37
三 . 日本의 防衛計劃과 防衛路線	43
1 . 防衛計劃과 長期目標	43
2 . 防衛計劃과 防衛產業	46
가 . 防衛產業의 發足	46
나 . 第 1 次 自衛力整備計劃과 防衛產業	48
다 . 第 2 次 自衛力整備計劃과 防衛產業	49
라 . 第 3 次 自衛力整備計劃과 防衛產業	50
마 . 第 4 次 自衛力整備計劃과 防衛產業	51
3 . 防衛產業의 實態	52
4 . 防衛產業의 展望	60

四 . 日本의 对韓政策의 展望	63
1 . 韓日間의 懸案問題	63
2 . 日本의 对韓防衛協力의 姿勢와 展望	67
五 . 結論 및 建議	81

본논문에 수록된 내용은  
당원의 공식의견이 아님

## 一. 戰後 美日關係의 歷史的 推移

### 1. 占領時代 ( 45 ~ 51 年 )

日本은 1945年8月 聯合國에 對한 無條件 降伏과 더불어 武裝解除된後 1951年9月 샌프란시스코講和條約에 依하여 獨立이 回復되는 6年間 聯合軍의 占領下에 있었다. 美國의 主要關心은 日本이 美國 또는 世界의 平和와 安全에 對하여 威脅力인 存在가 되지 않도록 保障하려는데 있다. 麥克더元帥를 司令官으로 하는 占領軍은 軍事的인 非武裝과 民主主義를 目的으로 全面的인 改革을 斷行코자 日本의 戰爭機構를 廢止하는데 그치지 않고 新憲法을 制定하여 「國權의 發動인 戰爭과 武力에 依한 威脅 또는 武力의 行使는 國際紛爭을 解決하는 手段으로서」 拋棄할 것을 憲法 第9條에 宣稱케 하였다. 그 具體的인 保障措置로서 經濟·社會·政治의 諸制度의 全面的인 民主化가 實施케 되었다. 어쨌든 占領初期의 美國의 對日政策은 制度的인 民主化와 더불어 軍事的인 非武裝化와 經濟的인 弱體化를 通하여 日本으로 하여금 軍事的으로나 經濟的으로 無力化시키는데 있었다. 當時의 美國의 對日經濟的 弱體化政策은 日本의 生活水準을 昭和9年 乃至 11年 當時의 水準을 維持케 하고 生産設備를 賠償으로 指定하여 比律賓, 印尼, 그리고 버마에 讓渡케 하였다는 事實에서도 理解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美國의 對日 經濟的 軍事的 無力化政策이 漸次 變化하기 始作하였으미 그 첫째의 變化는 1948年頃부터 일어났다.

具體的으로 論하자면, 1948年 伯林封鎖를 비롯하여 1949年에 있는 NATO의 結成과 中国大陸에서의 共產政權의 樹立 등으로 美蘇冷戰이 激化됨에 따라 美国은 突然 对日政策의 方向을 逆轉시켜 日本을 侵略戰爭에서의 敗戰国이나 世界平和에 對한 本來의 威脅으로서가 아니라 对共戰略을 爲한 不可缺의 同盟国으로 評價하게 되었다. 이러한 日本의 存在價值에 對한 美国의 새로운 評價는 民主化·非軍事化·經濟的 無力化에 重点을 두었던 占領初期의 政策으로 부터 政治의 安定과 經濟의 復興을 重要視하는 政策으로 그 轉換을 不可避하게 하였다. 이리하여 貿易抑制와 最少限의 援助物資提供의 時代로부터 貿易復活과 自力에 依한 經濟回復의 方向으로 轉換케 되고 1949년에는 世界와의 貿易再開를 爲하여 360對1로 換率이 設定케 되었다.

이러한 變化過程에서 美国의 对日政策에 決定的인 變化를 일으키게 한것은 韓國戰爭의 勃發이었다. 日本은 亞細亞 自由陣營의 集團防衛에 對한 아무런 寄与없이 韓國戰爭 勃發의 恩德으로 自由陣營의 一員으로서 그 獨立이 賦与케 되었다. 韓國戰爭이 日本의 經濟에 活氣를 주었음은 勿論 1950年8月 日本은 自衛隊의 前身인 警察豫備隊의 創設로서 經濟的 貧困과 軍事的 非武裝化의 被占領의 地位에 一線을 区劃하여 再武裝의 段階에 突入하였다. 韓國戰爭이 勃發한지 2週後인 7月8日 맥카더元帥가 吉田에 書簡을 보내어, 日本政府의 要請을 承認하는 形成에 依하여 7万5千名의 警察豫備隊의 創設을 命令하였다. 當時 日本이 敗戰国으로서 占領下에 있었기 때문에 그 節次에 있어 国会의 審議를 거치지



않고 政令으로 決定되었다. 이러한 美國의 態度는 美蘇冷戰의 激化에 따라 亞細亞의 對共戰略에서 占하는 日本의 戰略的 價値에 對한 評價의 産物이다. 1950年1월에 있는 「美國의 亞細亞 防衛線이 아류산列島에서 日本·琉球를 걸쳐 比律賓에 이르는 線」이라고 한 애치슨國務長官의 聲明은 日本의 戰略的 地位를 示唆한 것으로 理解하여도 無妨할 것이다.

然後에 美國의 對日政策은 安保政策을 基軸으로 하여 展開되어 왔다. 美國의 對日安保政策과 全般的인 亞細亞戰略과의 有機的인 結合은 1951年9月の 美日講和條約과 때를 같이하여 縮結된 美日安保條約의 縮結로서 明白히 나타났다. 安保條約의 縮結로 美日間에 戰後關係의 終結을 合法化하고 日本은 이미 美國의 敵國이 아니라 同盟國으로서의 地位賦與를 公式化하게 되었다.

## 2. 美日講和條約의 効와 安保條約 (52~60年)

講和條約에 對한 美蘇의 立場은 判異하였다. 美國이 對日戰爭에 參加한 各國의 多數決에 依한 講和方式인 多數講和論을 主張한데 反하여 蘇聯은 美, 蘇, 英, 中 四大國의 全員一致方式인 全面講和論을 固執하였으며 韓國戰爭의 勃發後 美國이 美軍 駐屯을 認定하는 美日安保條約의 縮結을 前提로 하는 講和條約을 提唱하는 反面에 蘇聯은 最少限의 日本의 再軍備를 許容하는 反面 美軍駐屯을 實體로 하는 安保條約을 非難하여 그 代表가 講和會議에 參席은 했으나 署名은 結局 하지 않았다.

美日講和條約과 安保條約의 締結로서 日本은 聯合軍의 占領政策에서 解放되고 그 國際政治上的 地位가 決定케 되었다. 講和條約의 中心目的은 太平洋戰爭에 關聯된 争点의 解決에 있었다느니 보다는 亞細亞에서의 反共包圍를 爲하여 日本을 同盟國으로 確保하여 美國이 그의 對日政策을 全般的인 亞細亞戰略이나 集團安保와 有機적으로 結合시키려는데 있었다. 講和條約과 同時에 安保條約이 發効되어 占領의 結果 및 韓國戰爭의 兵站維持의 必要性에서 이미 日本에 駐屯하고 있던 美軍의 繼續的인 駐屯을 規定하였다. 同安保條約으로 日本이 武装解除되어 自衛權行使가 不可能하므로 美國에 軍事的 駐屯權과 基地使用權을 日本이 許容하는 代身에 美軍에 依한 日本防衛를 規定하였다. 勿論 이것에 따르는 美日軍事協力은 日本의 對美 基地提供이 義務視되는 反面에 美軍의 行動은 義務라기 보다는 權力에 屬했다는 點에서 60년에 改定된 新美日安保條約에 比하면 片務的이며 不平等條約이 었으나 어쨌든 이것을 契機로 日本은 美國의 對共 包圍戰略의 一環으로서의 立場에 서게되고 또 日本이 美國의 同意없이 第三國에 軍事基地를 提供할 것이 禁止되고 美國은 오키나와 및 太平洋의 여러 작은 島嶼에 對하여 戰略 領域으로서 支配權을 維持할것을 主張했다. 日本이 對美安保條約을 通하여 美國에 對하여 同盟國으로서의 地位를 公式化하였음은 勿論 對蘇關係에 있어서는 1956年 日蘇共同宣言에 依하여 國交를 回復하고 또 對中共關係에서는 對美關係의 基本的인 紐帶의 틀 속에서 政經分離의 原則에 따라 民間貿易을 再開하게 되었다.

安保條約의 締結을 契機로 하는 對美同盟國으로서의 地位를 通하

여 日本은 戰後의 敗戰國으로서의 地位에서 벗어나서 獨立國으로서 國際 政治舞台에 參與케 되었으나 그것은 日本의 選擧 이라기 보다는 美國의 選擧이 있다고 할 수 있다. 美國의 選擧에 依한 日本의 國際政治的立場이 公式化였다는 點에서 同盟關係에서의 日本의 役割이나 姿勢는 受動的이었다. 日本이 그의 安保를 美國에 依存하므로써 軍備를 爲한 財政的인 負擔에서 거의 自由로 있음은 勿論 對美紐帶를 통한 貿易의 增大와 더불어 高度經濟成長을 持續할 수 있었다. 그러나 美日安保關係가 美日間의 雙務的인 選擧에 依한 決定이 아니라 美國의 對共 包圍戰略構想에 따르는 選擧이 앞섰다는 點에서 日本의 政治的 經濟的 地位의 成長에 따라 美日間에 安保上의 利害가 自動的으로 同一할 수 없는 要因을 內包하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從來에 外交 軍事 經濟 그리고 文化에 이르기 까지 美日關係가 아무런 큰 마찰이 露呈되지 않았다는 것은 高度로 効果的인 意思傳達通路가 있었다거나 또는 外交 交渉의 技術이 卓越했기 때문이 었다기 보다는 安保問題에 關하여서도 다른 非安保問題와 마찬가지로 本質的으로 利害의 一致가 維持되었기 때문이 었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安保問題에 있어서의 利害의 一致는 日本이 成長함에 따라 美日間에 있어서 公式的인 安保紐帶의 強化過程에 反比例하여 漸次的으로 露呈케 되었다.

### 3. 安保條約의 改定 = 新安保條約의 締結 ( 1960 年 )

新安保條約은 60年1月19日에 調印되어 同 6月23日에 發効되었는데 旧條約이 前文에서 日本이 固有의 自由權을 行使할 수 없으므로 美國이 防衛한다고 한데 對하여 新條約은 兩國間에 友好關係의 促進, 國際平和와 安全의 維持에 對한 共通關心을 考慮하여 相互協力 및 安保條約을 締結한다고 하였다. 여기에 新舊條約을 比較하면 다음과 같은 몇個의 事實을 指摘할 수 있다. 卽 新條約은 ① 日本이 外國에서 武力攻擊을 받았을 境遇에 美國이 日本을 防衛하는 것이 義務라고 明記하였다. 旧條約에서는 美軍의 日本駐屯을 認定하면서도 美國은 日本防衛의 義務를 條文化 明記하지 않았다. ② 美軍의 日本으로 부터의 出動과 核武器 等 一定以上의 兵力·武器의 日本內에의 搬入에 關하여서 美國은 日本과 事前協議를 하기로 하였다. 旧條約에서는 이들 美國行動은 全적으로 自由였다. ③ 日本國內에서 發生한 內亂에 對하여서는 美軍出動의 規定을 除去하였다. 旧條約에서는 外部的인 煽動에 依하여 發生한 日本國內의 內亂이나 暴動에 對하여 日本政府의 要請이 있으면 鎮壓을 爲하여 美軍이 出動한다는 規定이 있었다. ④ 安保條約과 유엔憲章과의 關係를 明確히 한 外에 政治 經濟面에서의 協力條項을 挿入했다.

이리하여 美軍駐屯權의 認定 및 그 駐屯施設의 使用에 依하여 日本의 防衛뿐만 아니라 極東地域의 防衛를 爲하여 活動할 수 있다는 點에서는 旧條約과 大差가 없다고는 하나 新條約이 不平等性

이나 片務性을 是正하여 파트너십을 強調하고 美國이 日本防衛를 義務로 受諾하는 反面에 日本이 美軍의 軍事活動에 對하여 事前協 議權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은 우리의 注目を 要하는 事實이 아닐 수 없다.

美日安保條約이 1970年 改定되고 現在 自動延長되므로서 日本의 防衛와 外交政策의 支柱로 되었음은 勿論 美日關係의 主軸으로 되 어 왔다. 戰後 26年間の 美日關係에 있어서 1945年에서 1951年 에 이르는 期間은 支配와 隸屬關係로 規定되는 勝戰國과 敗戰國間 의 關係에서는 占領時代였고 1952年에서 1960年에 이르는 期間은 不平等의 同盟友好關係였다. 이러한 不平等關係를 是正하여 美日關 係를 平等한 파트너십의 基礎위에 再建한 것이 1960年의 安保條約 의 改定이었다. 1960年에 있는 舊安保條約의 改定은 日本으로서는 吉田首相에 依한 쉐프란시스코講和의 選択, 鳩山首相에 依한 對蘇國交 回復과 더불어 그의 戰後 外交史上에 있어 重要한 意義를 가진다. 그리고 이러한 安保條約의 改定은 그간의 日本의 国力이나 國際的 地位의 向上을 그 背景으로 하고 있다. 1950年에 設置된 警察豫備 隊가 1952年에 保安隊로 改編되고 1954년에는 防衛庁과 自衛隊가 發足케 되고 1957년에는 國防의 基本方針이 閣議에서 決定되고 1958~1960年에 第1次防을 實施하므로서 日本의 自衛力이 增強되 고 또 經濟力이 大幅的으로 成長하고 나아가서는 1956年의 對蘇國交 正常化와 유엔에의 加入에 依하여 그의 國際的 地位가 向上케된 一連의 事實을 背景으로 하였다.

1961년에는 美日間に 既存의 提携關係를 強化하기 爲하여 貿易 經濟合同委員會, 美日教育文化會議 그리고 美日科學協力委員會를 設置 하므로서 美日간의 파트너십은 軍事·外交·經濟·教育文化·科學技術 의 모든 分野에서 追求케 되었다.

#### 4. 오키나와返還決定 및 닉슨·佐藤 共同宣言 (1969年)

닉슨·佐藤共同宣言은 오키나와返還의 合意와 表裏關係에 있다.

戰後의 美日關係가 支配·隸屬의 占領關係에서 對等한 파트너십關係로 變遷하는 過程에서 美日 兩國간의 問題는 日本의 要求를 可及的 許容하여 美國이 讓步하므로서 解決되어 왔다. 安保條約改定, 오키나와基地의 返還合意, 美國의 對日 輸入制限問題, 美日航空協定改定問題, 漁業問題, 오키나와의 B~50, 毒개스의 撤去問題等 모든 問題는 美日關係에 있어 優越한 美國의 地位에 對하여 日本이 보다 平等한 地位를 要求하여 이러한 日本의 要求에 對하여 美國이 그 妥當性を 認定하고 讓步하므로서 解決된 實例이다. 美國이 이처럼 그의 優越한 地位나 既得權을 讓步해 온 것은 不平等性의 是正에 對한 日本의 主張의 正當性を 認定한 結果적인 產物이기는 하지만 이 보다도 重要한 것은 日本의 保守黨의 支持 그 自體 보다도 國民大衆의 支持위에 선 保守黨 政權과의 紐帶를 통한 兩國간의 平等한 友好關係의 確立이 美國에게 緊要하다는 보다 高次的인 政治的인 次元에서의 認識의 所産이었다는 事實에 있다. 그 中에서도 美國의 最大의 對日讓步는 오키나와返還에 對한

合意가 아닐 수 없다. 오키나와는 샌프란시스코平和條約에 依하여 美国이 그 施政權을 確保한 地域이다. 더욱기 오키나와는 그 地理的인 位置에서 보아 極東의 戰略的 要衝地에 있으며 世界에서 가장 優秀한 施設과 投資로서 軍事基地化되어 있다. 이러한 施設完備의 軍事基地로 되어 있는 오키나와基地의 施政權을 一朝有事時 自由使用의 條件으로서가 아니라 日本의 事前協議權의 制限을 받을 것을 條件으로 日本에 返還하기로 合意하였다는 것은 勿論 一面에서 본다면 中共의 核開發에 依하여 오키나와가 軍事基地로서의 價值가 減少되어 가고 있다는 事實을 비롯하여 軍事科學技術의 發達에 따라 一朝有事時 美本土나 하와이에서의 戰略的 機動作戰이 可能하다는 點, 닉슨·독트린에 따라 美軍의 海外 常時駐屯보다도 援助와 有事時 駐屯이나 介入縮少의 追求 그리고 對中共 接近에 依한 美中 軍事的 分極化의 緩和나 緊張緩和의 摸索等 一連의 事實이 配慮되어 反映되고 있으나 이 보다도 重要的 點은 日本側要求와 그의 國民感情에 配慮하여 그間 美日間에 展開되어 온 友好協力關係를 將次에도 永統적으로 安定시키려는 보다 높은 政治的 次元에서 그에 對한 至大한 代價의 支拂을 美国이 아끼지 않았다는 點에 있다. 여기에서 본다면 오키나와 施政權의 返還以後에 美日間의 友好協力關係의 繼續的인 維持發展을 爲하여서는 高次的인 政治的 次元에서의 配慮에 따르는 美国의 對日讓步의 真意를 日本의 執政黨이나 國民이 앞으로 어떻게 理解할 것이냐가 重要的 役割因子로서 作用할 것임을 充分히 豫見할 수 있다. 轉換期에 突入한 美日關係의 過程에서 오키나와 施政權의 返還合意는 日本에

대한 美国의 값진 贈物이라고 보아진다. 오키나와施政權의 返還에 依하여 美国으로서의 日本의 脱对美關係의 可能性을 放任하는데 安心할 수 없으며 오히려 返還以後에 美日關係가 보다 多角的이며 安定된 緊密한 友好協力關係에의 發展 나시 말해서 日本이 美国의 極東戰略體制에 더욱 自發的으로 緊密해 질것에 對한 至大한 關心 속에 있다고 보아진다.

오키나와施政權의 返還以前에 있어서는 美国은 美日安保條約의 테두리에서 벗어나서 그것과는 無關係하게 오키나와基地의 自由使用이 可能했다. 그러나 그의 施政權이 返還되면 오키나와基地의 使用은 日本의 本土와 마찬가지로 美日安保條約의 테두리 안에 들기 때문에 核武器의 設置나 作戰行動이 다 같이 日本과의 事前協議의 對象이 된다. 따라서 生産과 補給基地로서의 日本本土와 行動의 自由가 保障된 오키나와를 連結한 戰後의 美極東戰略體制의 保証与否는 오키나와施政權의 返還以後에는 이에 對한 日本의 協調如何에 달리게 된다. 日本本土의 駐屯美軍은 講和條約 當時의 26万에서 1969年에는 4万 그리고 70年末에는 兩國間에 決定에 依하여 2万8千以下로 大幅減少되어 75年頃에는 美地上軍이 거의 完全撤収할 것으로 豫想된다. 그리고 다른 한편에 있어서는 施政權返還 以後의 오키나와美軍이 本土와 오키나와의 輿論의 壓力下에서의 撤収보다도 더욱 빠른 速度로서 美軍이 撤収의 壓力을 받을 可能性이 있다. 뿐만 아니라 本土 및 오키나와의 美軍基地도 大幅 減少되어 나머지의 重要基地는 自衛隊의 管理下에 移管되어 有事時에 있을 美軍의 再展開에 對備케 될것이다. 이러한 點에서 본다면 오키나와



施政權의 返還이 어느 時期에 가던 安保條約下의 美日間의 實質的인 同盟關係와 戰略關係의 修正을 不可避하게 할 可能性을 全혀 排除하고 있지 않다고 할것이다.

이러한 오끼나와施政權의 返還合意와 表裏關係에 있는 것이 닉슨·佐藤共同宣言이다. 1969年 11月 21日에 있는 佐藤·닉슨共同宣言에 依하여 오끼나와施政權의 返還이 合意되고 1971年 6月 17日에 返還協定이 美日間에 調印되었다. 그러나 닉슨·佐藤共同宣言은 오끼나와 施政權의 返還에 對한 合意外에 다음과 같은 몇個의 重要한 事實을 內包하고 있다. 卽 日本이 첫째 韓國의 安全이 日本의 安全에 對하여 緊要하며 (essential) 둘째 台灣의 安全이 日本의 그것에 對하여 重要하며 (important) 셋째 印支地域의 安定을 爲한 役割의 探求를 首肯하였으며 그리고 세계로 經濟問題에 關하여 國際貿易과 通貨의 維持 強化에 美國과 더불어 重要한 責任이 있음을 是認하고 貿易과 資本의 漸次的인 自由化를 닉슨大統領에 對하여 約束하였다. 共同宣言속에 明記되어 있는 이러한 內容은 ① 戰後에 美國이 專担해 오던 韓國과 台灣의 安全保障에 對한 責任의 相當한 部分을 日本이 引受할 것을 公式的으로 確認하고 ② 印支半島의 經濟開發을 爲하여 日本이 積極的으로 參與支援할 것을 約束하고 그리고 ③ 美日間의 重要經濟問題를 漸次的으로 解決하는 方向으로 日本이 努力할 것을 約束한 宣言으로 理解하여 無妨할 것이다. 元來 닉슨·독트린은 美國의 後退戰略에 따르는 日本에 依한 役割代行에 對한 至大한 期待와 對中共關係改善을 爲한 日本의 中間役割에 對한 期待를 前提하고 있었다. 그러

나 이러한 役割代行의 期待에 對하여 日本은 그의 國內政治的 狀況에서 보아 선뜻 應할 姿勢에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의 自民黨政府는 事實上으로 躊躇해 왔다. 그러는 가운데 키신저의 北京訪問과 닉슨大統領의 訪中決定으로 直接的인 美中接近의 試圖가 劇적으로 이루어지게 되었으며 또 이에 따르는 對日 닉슨·속크로크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베트남戰爭 以前에는 美日關係는 日本의 對美貿易의 增大와 더불어 円滑했다. 그러나 베트남戰爭에의 軍事的介入을 通하여 美國이 軍事的 經濟的인 莫大한 負擔을 느끼게 됨에 따라 經濟的인 高度成長의 持續과 對美輸出超過를 보는 日本과 國際收支에서의 赤字와 經濟的 困難에 허덕이게 된 美國사이 에 摩擦이 일기始作했다. 이러한 點에서 美日關係를 經濟的인 側面에서 본다면 오끼나와 施政權의 返還에 對한 美國의 決斷은 貿易과 資本의 自由化問題를 비롯하여 美日間에 介在되어 있는 많은 經濟問題에 있어서 日本側이 讓步協調할 것에 對한 美國側의 反對 給付的인 期待가 內包되고 있음을 能히 짐작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美國側의 期待에 對한 日本側의 反應은 尙今 冷靜하며 따라서 70年代의 美日關係는 遂斷을 不許하는 많은 難問을 內包하는 轉換期에 突入하고 있다.

## 二. 美日關係의 基本性格과 問題點 및 展望

### 1. 美日關係의 基本性格

앞에서 戰後 美日關係의 推移過程을 檢討해 보았다. 그러면 이번에는 그러한 歷史的 推移過程속에 內包되어 있는 美日關係의 基本性格이 무엇이며 또 그것에서 派生된 現在的인 問題點이 무엇이며 나가서는 將次的 美日關係가 어떻게 展望될 것이냐를 檢討해 보기로 한다. 그러기 爲하여 먼저 戰後에 展開된 美日關係의 基本性格이 무엇이나를 考察하기로 한다.

앞에서 示唆한 바와 같이 戰後 25年間の 美日關係는 1945年의 無條件 降伏에 따르는 被占領時代를 第一段階로 하여 第二段階는 1952年 샌프란시스코講和條約의 發効를 前後하여 始作되는 不平等한 友好關係의 時代이며 第三段階는 1960年 美日安保條約 改定 以後의 美日 平等友好關係의 時代이며 第四段階는 1969年 오끼나와施政權의 返還合意와 닉슨·佐藤共同宣言을 契機로 하는 今後의 새로운 關係의 摸索時代이다.

戰後 25年間 美日關係는 主客觀的인 情勢의 變動에 따라 占領에서 獨立 그리고 對等한 關係로 發展하고 나가서는 競争關係로 轉換해 가고 있다. 日本의 被占領時代에 있어서 美國의 占領目的은 單純한 統治의 領을 넘어서 日本의 非軍事化와 民主化의 達成이라는 美國의 使命感이 內包되어 있었다. 日本이 또다시 現狀打破의 軍國主義國家로 再登場하지 못하도록 戰後의 日本을 敗戰國으

로서 徹底하게 無力化할 것을 美国이나 聯合國이 바라고 또 그것이 世界平和를 爲한 것이라고 믿게된 것도 当然한 論理였다. 그러기 때문에 美国이 中心이 되어 創設한 유엔憲章에 「旧敵國에 依한 侵略政策의 再現」이라든지 「旧敵國에 依한 새로운 侵略」이나 또는 「旧敵國」을 侵略性이 強한 國家로서 差別하는 規定이 있을 것이다. 이 旧敵國條項은 日本과 같은 旧敵國을 戰後世界에서의 主要한 潛在的인 侵略國으로 看做하고 戰後의 世界平和의 維持를 爲하여 그 潛在的인 侵略者를 無力化하는 것이 가장 重要하다는 생각이 었다. 占領時代의 美国의 民主化·非軍事化政策은 日本의 無力化·弱體化를 爲한 것이었다. 美国은 占領期間中の 武装解除와 民主化만이 아니라 占領終結後에도 그의 政策的 效果를 持續的으로 安定化시키기 爲하여 所謂 「매카더草案」을 日本政府에 提示하여 非軍事化·民主化의 制度的인 恒久化를 爲하여 「매카더憲法」을 制定했다.

그러나 美国의 豫想과는 달리 戰後에 있어서 世界平和의 威脅이 旧敵國에 根源한 것이 아니라 共產主義라는 새로운 國際政治勢力에 根源했다. 蘇聯의 東歐에의 勢力膨脹을 비롯하여 中共政權의 樹立 그리고 韓國戰爭의 勃發이라는 一連의 새로운 情勢變化는 美国으로 하여금 그의 對日 占領政策의 再檢討를 不可避하게 하였다. 이러한 情勢變化에서 美国은 이미 日本을 監視하며 抑制해야할 旧敵國으로서가 아니라 協力이 必要한 同盟國으로서 또는 匪緝匪의 對共 包圍戰略의 展開를 爲한 安定勢力으로 育成하지 않으면 아니되게 되었다. 다시 말해서 美日關係는 占領國 美国과 被占領國 日本의

命令服從關係로 固定시킬 수 없게 되었다. 따라서 美國의 對日政  
策의 變化는 첫째 民主化에 關하여서는 民主主義와 兩立되지 않은  
共產主義勢力을 매스컴이나 公職에서 追放하고 둘째 非軍事化에 關  
하여서는 大幅的인 緩和 卽 再軍備로서 나타났다. 이리하여 美國  
은 占領期間中에 民主化政策에는 一貫性을 維持했으나 非軍事化政策  
에 있어서는 永久非武裝化政策에 依한 無力化를 緩和하여 自衛力保  
有를 許容하고 漸次的으로 그것을 奨勵~勿論 在來式 軍事力에 局  
限된 것이지만~하는 方向으로 轉換했다. 吉田內閣은 再軍備中心主  
義나 經濟中心主義나 또는 中立이나 對美協調나 兩者択一의 岐路  
에서 經濟中心主義와 對美協調=美日安保體制를 択하였다.

1950 年の 警察豫備隊의 創設이 日本의 自衛力保有에 對한 美國  
의 許容을 意味한다면 1951 年の 샌프란시스코條約은 美日間の 戰  
後關係의 終結과 日本의 獨立 그리고 같은 해에 있었던 安保條約  
은 美日關係가 占領에서 파트너십關係로 轉換함을 公式化한 것이다.  
그러나 安保條約이 發効되는 1952 年에서 부터 1960 年에 그것이  
改定되기 까지의 美日協力關係는 不平等한 關係였으며 따라서 法的  
으로 美日關係가 平等한 關係로 된것은 1960 年에 있는 旧安保條  
約의 改定을 契機로 하였다. 然後에 美日安保關係는 美日關係의  
支柱로 되어 왔다. 그리고 美日安保關係는 美國의 戰略的 關心의  
焦點이 50 年代에 韓半島를 中心으로 하는 東北亞에서 60 年代에는  
베트남을 中心으로 하는 東南亞에 移行함에 따라 그 内容的인 性  
格에 있어서 變化를 가져왔다. 卽 美國은 1950 年代의 旧安保條  
約下에서는 日本을 韓國防衛를 爲한 直接的인 後方作戰 및 補給基

地로서 確保한데 反하여 1960年代의 新安保條約下에서는 直接的인 作戰行動을 爲한 基地機能을 本土에서 오끼나와로 轉移하여 오끼나와基地의 增強을 追求했다. 이리하여 新安保條約下에서는 日本本土는 技術能力과 生産力を 背景으로 하는 後方補給基地로서 그 機能이 期待되고 오끼나와는 直接的인 作戰 및 發進基地로서 一次的으로 그 機能이 期待되었다. 그間 日本은 美日安保體制에 依하여 對美安保依存과 더불어 그 安保體制下에서 漸次的인 自衛力の 段階的인 整備 그리고 經濟的으로 高度成長을 持續하므로서 새로운 對美關係의 歷史的인 轉換期에 들어서고 있는바 「佐藤・尼克슨共同宣言」과 오끼나와 施政權의 返還合意가 바로 그것을 端的으로 示唆하고 있다. 日本은 美國의 核雨傘 속에서 防衛에 要하는 財政的 政治的 負擔에서 가벼워 지므로서 經濟的으로는 大國化할 수 있었으나 그 反面에 經濟大國에 必然的으로 隨伴되는 軍事的 寄與에서 外面하고 있다는 點에 向後的 美日關係의 基本問題가 있다.

戰後에 있어 美國의 對日政策은 雙務的이며 非軍事的인 關係를 至極히 重要視하였으며 美日間에는 經濟的 文化的 그리고 政治的인 接觸을 擴大해 왔다. 美日間의 이런 接觸과 相互作用의 擴大는 安全保障에 對한 注意를 支拂함이 없이 이루어지고 美國이 日本에 對하여 總統 後見人의 役割을 할것이라는 見解까지 자아냈다. 그리고 反面에 있어 美國의 援助와 交易 그리고 技術에 依한 日本의 눈부신 經濟成長을 美國은 그것이 그대로 安保를 爲한 國際行動으로 通하는 것으로 期待한것 같다. 이리하여 美日間에는 結果的으로 安保問題에 關하여서도 다른 非安保問題에 關한것과 마찬가

지로 利害의 一致가 있었다 함은 그간의 兩國關係의 円滑性에서 理解된다. 過去 十年間 美國은 亞細亞의 紛爭에 繼續 軍事的介入을 斷行하는 한편 日本에 對하여서는 核兩傘을 提供하여 軍事的協力を 圖謀하브로서 日本으로 하여금 政治·經濟面에서의 亞細亞에서의 指導的 役割을 다하게 하려는데 그 政策目的을 두어 왔다.

이러한 美國의 對日政策의 目的은 美日間에는 向後에 있어서도 安保問題에 있어 基本的인 利害가 一致하며 또 國際政治面에서의 政治·經濟的인 問題를 安保問題와 一旦 分離시킬 수 있다는 前提위에 서 있었든것 같다. 그러나 事態의 進展은 이것과는 正反對로 日本이 政治的 獨立을 強化하고 經濟的으로 國際競爭力을 增大하게 됨에 따라 兩國間에 相互作用의 規模의 擴大는 그 衝突의 機會도 增大시켰다. 이러한 美日間の 衝突의 契機는 基本的으로 戰後의 美國의 對日安保政策이 美日間の 雙務的인 選擇에 依한 一致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美國의 亞細亞 對共包圍戰略의 一環으로서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事實에 根源한다. 이것은 漸次的으로 美日安全 保障의 利害가 自動的으로 同一할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을 意味한다. 따라서 앞으로 日本이 果然 安全保障에 關聯된 現實政治에 對한 關心에서 全的으로 外面할 수 있을 것이냐에 美日關係의 向方이 달려있다. 戰後의 美日關係는 美國의 立場에서 본다면 一致된 安保利害의 維持에 目的을 두고 兩國間の 經濟的 政治的 文化的 그리고 科學技術面에 있어서의 接觸의 擴大는 安保目的의 達成을 爲한 手段으로 想定되어왔다. 따라서 過去와 마찬가지로 將次에 있어서도 美日關係의 性格을 窮極的으로 規定하는 것은 安保問題이다.

왜냐하면 安保問題에 있어서의 利害의 一致를 떠나서는 다른 非安保問題에 있어서의 利害의 安定된 一致를 期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러한 点에서 오늘날 美日間에는 많은 懸案의 問題가 介在되어 있다. 美國이 經濟協力을 手段으로 安保에서의 利害의 一致를 目的으로 생각한데 反하여 日本은 逆으로 對美安保紐帶를 手段으로 하고 經濟成長을 目的으로 삼고 있다.

## 2. 美日間の 主要問題点

### 가. 經濟問題

美日間에는 비단 安保에 關聯된 問題뿐만 아니라 많은 經濟問題가 介在되어 있으며 이 兩者는 서로 原因이자 結果로서 相互作用하고 있다.

먼저 經濟問題부터 檢討하기로 한다.

美日間の 主要經濟問題에는

- (1) 円の 大幅切上問題
- (2) 資本・貿易(輸入)의 自由化問題
- (3) 非關稅障壁의 撤廢問題
- (4) 關稅의 引下問題
- (5) 國內生産에 依存하지 않고 美製武器의 大量購入 要請問題
- (6) 後進國援助의 增大問題
- (7) 防衛費分担問題等

諸問題가 內包되고 있다.



円의 大幅切上에 對한 美國의 要求에 對한 日本의 立場은 円의 切上要求에는 應할 수 없으며 國際通貨의 調整은 어디까지나 個別 國間에 이루어질 것이 아니라 國際間的 一律的 調整에 依하여 各國이 責任을 分擔해야 하며 따라서 美國이 弗을 切下시켜야 한다고 主張해 오는데 있었다. 그 反面에 美國은 國際收支의 改善을 爲하여 円의 切上이 不可避하며 따라서 25%의 切上을 要求해 왔다.

이러는 가운데 日本은 지난 6月4日에 「円切上 回避 8項目」을 發表하였는데 그 內容은 다음과 같다.

- (1) 9月末까지 殘存 輸入制限品目を 40項目까지 削減하여 10月以後에는 自由化를 促進한다.
- (2) 8月1日에 特惠關稅를 引下한다.
- (3) 關稅引下를 圖謀하기 爲하여 先進國間的 一括引下 交渉을 提案한다.
- (4) 第4次 資本自由化를 積極化하여 對外 直接投資의 制限을 原則적으로 撤廢한다.
- (5) 非關稅障壁을 撤廢한다.
- (6) 經濟協力을 增進한다.
- (7) 72年부터 輸出振興稅制를 全廢 또는 中止한다.
- (8) 輸出드라이브의 是正과 輸入效果의 擴大를 圖謀한다.

이러한 日本側의 消極的인 態度에 對하여 닉슨大統領이 8月15日에 「新달러防衛政策」을 發表하였는데 그 內容은 다음과 같다.

- (1) 一時的으로 金과 弗의 交換을 停止한다.

- (2) 暫定的으로 10%의 輸入附加稅를 實施한다.
- (3) 90日間 賃金·物價를 凍結시킨다.
- (4) 投資稅 控除의 復活을 要請한다. (初年度 10%, 平年度 5%)
- (5) 議會에 對하여 自動車 投資稅(7%)의 廢止를 勸告한다.
- (6) 73年 1月 1日부터 實施豫定の 個人所得稅를 1年 앞당겨 72年 1月부터 實施토록 議會에 要請한다.
- (7) 72年度의 聯邦支出을 47億弗 削減한다.
- (8) 對外援助를 10% 削減한다.

美日間の 立場의 差異에 있어 日本은 資本·貿易의 自由化에는 應할 수 있어도 円의 切上要求에는 應할 수 없으며 美國의 經濟的 困難의 最大要因이 美國商品이 國際競爭力이 脆弱한데 있다고 하여 結局 變動換率制를 採択할 것을 宣言하므로서 對美關係에 마찰을 일으키고 있다.

貿易·資本의 自由化問題에 있어서는 特히 닉슨大統領의 重要關心은 그의 政治的 基盤으로 되어있는 南部地方에 있는 纖維業者들의 利害에 關한 것이다. 美日間に 있어서 貿易의 自由化에 關한 主要問題는 纖維問題를 筆頭로 하여 電子工業製品 自動車, 鉄鋼 等に 關한 것이다. 纖維에 있어 69年度 日本의 對美輸出이 5億弗에 達하는 反面에 美國은 對日輸出에 있어 10,500弗의 実績을 보이는데 끝이므로서 13億弗의 赤字를 나타내고 있다. 自動車에 있어서는 69年度 日本의 對美輸出이 301,749台이고 美國製品의 輸入이 4,245(約 70分之1)에 不過하므로서 日本의 對美輸出은

69년에 이르는 4年間に 있어서 10倍의 増加를 보고 있다. 電子工業製品은 69年度 日本의 對美輸出이 12億弗이고 美國製品의 輸入이 2億7,500万弗이고 T.V에 있어서는 日本의 對美輸出이 65年度에 6,200万弗, 69年度에는 2億6,500万弗이었다. 그리고 鉄鋼에 있어서는 日本의 對美輸出이 60年度에 7,200万弗, 69年度에 7億2,700万弗로서 10倍의 増加를 보였다.

美國의 纖維工業이 닉슨의 政治基盤인 南部가 中心地로 되어 있다는 점에서 닉슨大統領의 関心이 至大하여 纖維問題의 解決을 爲하여 佐藤首相의 諒解下에 닉슨은 美日兩國의 政府間의 交渉에 依할 것으로 期待하여 왔다. 그러나 佐藤은 일단 政府間의 交渉에 對하여 諒解한 다음에 더우거나 닉슨의 政敵인 美下院歳出委員長 「필즈」氏와 交渉을 通한 業者의 自主規制宣稱을 放任했다는 事實에서 닉슨大統領의 大怒를 사고 있다. 그리고 自由化問題에 있어서는 닉슨大統領은 「円切上回避 8項目」으로서는 不充分하며 따라서 日本에 對하여 美國 関心品目の 自由化를 要求하여 日本經濟의 門戶開放을 要求하고 있는데 反하여 日本은 国内産業政策上 美國関心品目の 自由化를 拒否하고 있어 쉽사리 解決될 展望을 보이지 않고 있다.

뿐만 아니라 美國은 日本의 自衛力整備計劃에 따르는 武器需要를 爲하여 日本이 美國의 武器를 보다 大幅的으로 購入해 줄것을 日本에 對하여 要求하고 있으나 裝備의 国産化를 指向하는 日本의 立場은 拒否的인 態度이던바 닉슨의 對中共訪問 決定에 依한 所謂 닉슨·쇼크를 契機로 하여 具體的인 立場의 表示는 尙今 되어있지

는 않았어도 漸次 美國武器購入을 檢討하는 方向으로 움직이기 始  
作했다.

駐屯費分担問題에 있어서 美國이 駐日美軍의 年間駐屯費 9億6,000  
萬弗의 負擔을 要求했으나 尙今 日本은 이것에 不応하고 있다.

西獨의 境遇에는 駐屯費分担의 美國側 要求에 對하여 그것을 拒否  
하는 代身에 마르크의 切上으로서 反應했다.

그러나 日本의 境遇에는 이미 指摘한 바와 같이 円의 切上要求에  
對하여 拒否하여 變動換率制를 採択하였고 또 駐屯費分担要求에 對  
하여서도 外面하고 있다. 駐屯費分担에 關하여서는 日本의 立場은  
安保條約의 地位協定에 依하여 基地의 賃借料等 一部の 經費에 限  
하여 駐屯費를 分担하고 있으며 따라서 이 一部の 經費를 控除한  
나머지의 새로운 駐屯費의 分担을 爲하여서는 地位協定の 改定이  
必要한데 이것은 野黨의 攻擊의 對象이 되므로 應할 수 없다는데  
있다.

防衛費分担의 問題는 廣義로 보던 駐屯費分担 外에 日本의 國防  
費增大의 要求問題가 包含되어 있음은 勿論 後進國援助에 關한 問  
題가 關聯되어 있다. 따라서 防衛費分担問題는 單純한 經濟問題가  
아니라 防衛協力の 一環이므로 그 目的意識에서 보아 多分히 政治  
的인 性格을 가지는 問題이다.

日本の 国防費増大에 對한 美國의 要求는 韓國戰爭을 契機로 提  
起되었고 이것은 베트남戰爭을 契機로 더욱 表面化되었다.

이 境遇에 있어서 恒常 拳論된 數値는 日本이 國民所得의 2%를  
國防費로서 負擔해야 한다는데 있었다. 元來 1957年에 岸首相이  
華府에서 大統領과 會談했을 때 岸首相이 駐日 美地上軍의 撤退  
를 要求하고 이에 對한 補完策으로서 國民所得의 2%의 防衛費負  
担과 防衛庁의 國防省에의 昇格이라는 두가지 政策을 提示했다고  
하며 然後에 美國側에서는 日本에 對하여 2%의 防衛費負擔을 要  
求하는 反面에 日本政府도 公式的으로나 非公式的으로 2%의 數値  
를 反復해 왔다.

1950年에 警察豫備隊가 充足한 以來로 日本은 그 防衛關係費에  
있어 絶對額이 每年 大幅増大 一路에 있었으나 그 反面에 國民總  
生産・國民所得・一般會計歳出과 防衛關係費와의 對比는 圖表에서 보  
는 바와 같이 每年 低下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國民 總生産에서 占하는 防衛關係費의 比率은 美國이  
9.8인데 反하여 日本은 不過 1%未滿이다. 日本은 經濟力으로  
보아서 2%의 防衛費를 負擔할 充分한 餘力이 있다.

그러나 지금 現在까지의 日本政府의 自衛隊 및 憲法에 關한 公式  
見解로서 憲法上 自衛力은 自衛를 爲한 必要最少限度를 넘어서 増

強할 수 없으며 그 增強에는 憲法上 絶對的인 限界가 있다는 立場을 取하고 있으나 그 實 알고 보면 이러한 法制上의 規制보다도 国内政治的인 要素에 對한 配慮와 아울러 美日安保體制에 依存하는 限 安価한 防衛로서 經濟的인 高度成長의 持續에 主眼點을 두었다는 經濟的 實利主義에 그 要因이 있다.

日本の 国民総生産等과 防衛関係費와의 比較

(単位：億円)

年 度	防衛関係費 国民総生産 %	防衛関係費 国民所得 %	防衛 関係費 一般会計歳出 %
1950	3.33	3.88	19.75
51	2.33	2.94	15.95
52	2.93	3.50	19.58
53	1.71	2.14	12.21
54	1.72	2.08	13.51
55	1.54	1.88	13.31
56	1.44	1.79	13.11
57	1.28	1.57	12.12
58	1.29	1.57	11.14
59	1.16	1.45	10.29
1960	1.00	1.23	9.07
61	0.95	1.19	8.71
62	1.01	1.24	8.34
63	1.00	1.24	8.10
64	0.98	1.24	8.41
65	0.97	1.22	8.16
66	0.94	1.18	7.71
67	0.90	1.12	7.44
68	0.83	1.05	7.25
69	0.84	1.06	7.18

出処：衛藤藩吉・永井陽之助編 “講座 日本の将来” 3 p.169

主要国에서의 国民總生産에서 占하는 國防費의 比率

国	名	对 GNP比 (%)
美	国	9.8
蘇	聯	9.6
中	共	9.2
仏	蘭 西	5.3
英	国	5.7
日	本	0.84
西	独	4.3
東	独	3.7

出処：衛藤藩吉・永井陽之助編 “ 講座 日本の将来 3 ” P. 130.

다음에는 經濟援助에 関한 問題이다. 피어슨報告書에 依하면 先進国은 1975 年까지 国民總生産의 1%를 援助할 것과 그 中에서도 7%는 政府의 直接援助로 되어야 한다고 되어 있다. 이것은 從來에 政府의 直接援助만이 아니라 民間投資와 延払等에 依한 援助의 總額이 總生産의 1%가 되어야 한다는 것과는 判異하며 政府의 直接援助의 大幅的인 增額을 要求하고 있다.



이 報告書의 要請에 依하면 75年까지 先進國의 援助의 總額은 161億弗로서 그 中에서 美國이 82億弗, 西獨이 12億弗, 仏蘭西가 11億弗, 英國이 8億弗 그리고 日本이 20億弗로 推定되어 日本이 美國 다음에 第2位의 援助를 해야 된다.

日本이 援助總額에서는 1970년에 겨우 GNP의 0.93%로서 量的으로는 1%에 近似하지만 質的인 面에서 그 構成內容을 보면 輸出信用이 約 절반을 차지하고 있어 報告書에서 要求하는 政府 開發援助는 援助總量의 三分之一에 未達하며 GNP의 0.23%로 되어 있어서 69年度의 実績 0.26% 보담도 그 比重이 低下되고 있다.

따라서 援助額에 있어서 日本이 美國・仏蘭西・西獨・英國 다음으로 自由世界에서 第5位를 占하고 있으나 如前히 輸出市場 開拓, 輸出進出을 爲한 援助를 中心으로 하고 있다는 點에서 日本에 對한 批判이 加하여질 수 밖에 없으며 또 援助增加 努力이 要請되고 있다.

#### 나. 安保問題

美日間の 安保에 關한 問題는 오끼나와問題를 비롯하여 核武器問題, 對外政策問題 그리고 韓國이나 台灣에 對한 美日間の 防衛 協力問題에 이르기까지 많은 問題를 內包하며 이들 問題는 基本的으로 安保에 關한 利害의 一致與否에 關한 問題로서 終極적으로 將次 日本이 어떠한 安保體制를 選擇할 것이냐의 問題 다시 말해서 美日安保體制의 將來에 關한 問題에 歸着한다.

美日間の 安保에 関한 利害의 一致与否 問題가 安保 그自体에 關聯된 問題의 將來를 左右함은 勿論 安保利害의 一致없이는 其他의 非安保的인 問題 이를테면 經濟問題에 關한 解決을 期할 수 없다.

69年 11月에 華府에서 닉슨·佐藤間에 合意되고 71年 6月에 協定이 調印되므로서 72年에 있을 오끼나와 施政權의 返還問題는 一面에 있어 美極東戰略의 轉換을 意味하느니만치 重要한 問題이며 內容的으로는 核武器의 搬出·搬入問題를 비롯하여 基地使用問題 그리고 批准問題에 이르기까지 적지않은 問題를 內包하고 있다.

이미 앞에서 言及한바와 같이 오끼나와는 그 施政權의 返還以前까지는 美日安保体制의 테두리 밖에서 美日安保條約과 無關係하게 그 基地를 美國이 自由로히 使用할 수 있다. 그러나 施政權의 返還以後에는 오끼나와基地의 使用問題는 美日安保体制의 테두리 안에 들며 따라서 一朝有事時의 核武器의 搬入問題를 비롯하여 基地使用에 關한 모든 作戰行動은 事前協議의 對象이 된다. 勿論 美日安保体制가 廢棄되지 않는 限 事前協議를 통한 美日間の 協力이 白紙化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미 美日間に 摩擦이 露呈되고 將次에 美日安保体制의 性格上의 變化 可能性이 示唆되기 始作하는 今日の 實情에서 보더라도 事前協議를 통한 日本의 對美協調가 반드시 美國의 予想대로 円滑할 것으로 期待하기 어려운 점이 많다.

69年 11月 21日에 있는 닉슨·佐藤共同宣言과 때를 같이하여 佐藤가 美國 National Press Club 에서 行한 演說를 통하여 「韓國에 對한 武力攻擊에 對処하기 爲하여 美軍이 日本에 있는

施設과 区域을 作戰行動을 爲한 發進基地로서 使用하지 않으면 아니되는 事態가 發生했을 境遇에 日本政府가 事前協議에 對하여 積極的이며 迅速하게 態度를 決定할 方針]이라고 밝힌바 있거니와 이 事前協議에 對한 積極的이며 迅速한 態度란 美國의 自由發進을 그 대로 許容한다는 것을 意味하느냐에 對한 日本議會의 質問에 對하여 그것이 危急한 事態이므로 日本의 態度를 迅速하게 決定할 것을 意味한다고한 近者의 佐藤의 証言은 우리의 注目を 끄는 重要한 事實이 아닐 수 없다.

이 佐藤의 証言은 額面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事前協議는 次로 日本에서의 美軍의 自由發進을 保障하지 않는다는 結論이 나온다.

오기나와 施政權에 對한 美日間の 返還合意에 對하여 美國側의 立場은 施政權은 返還하되 主要基地는 繼續 維持한다는데 있다. 返還時 基地의 返還은 13個所이며 不遠한 將來까지 返還되는 것이 46個所이며 非返還이 134個所 中에서 88個所이며 美軍이 如前히 그 大部分의 使用이 可能한 것으로 보고 있다. 뿐만 아니라 核武器에 있어서는 日本이 非核三原則에 依하여 核武器의 再搬入을 事前協議를 通하여 拒否할 수 있는 것으로 보는 反面에 美國으로서는 一朝有事時 再協議에 依하여 核武器의 再搬入이 可能한 것으로 보고 있다는 點에서 커다란 立場의 差異가 있다.

核武器 問題에 있어서 再搬入 問題와 表裏關係에 있는 것이 撤去問題이다. 닉슨·佐藤共同宣言에도 核武器를 撤去한다는 明文의 規定이 없으며 다만 美國이 核武器에 對한 日本國民의 特殊한 感情 및 日本政府의 그것을 背景으로하는 政策에 깊은 理解를 表示한다고 表現했을 뿐이며 返還協定の 前文에 있어서도 이것을 再強調하는데

붙이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오키나와 施政權의 返還으로서 主로 戰術的 核武器로 되어 있는 오키나와의 美核武器가 日本政府의 要求대로 撤去될 것이냐의 問題가 있었다. 따라서 오키나와 施政權의 返還問題는 基地使用問題나 核武器 撤去問題를 中心으로 美日間에 적지않은 事後 意見對立을 予想케 하여 美上院에서 오키나와 施政權 返還協力の 批准이 難航할 可能性마저 示唆되었다. 그 理由는 美国南部가 中心地로 되어 있는 美纖維業者의 利害를 政治的으로 引受한 낙슨이 業者의 自主規制宣言에 依하여 그의 要求에 外面한 佐藤에 對한 壓力措置로서 批准沮止를 挾할 境遇에 美纖維業界를 代表하는 南部出身 上院議員으로서 34票-批准沮止에 必要한 三分之一의 線 -의 反對票를 動員할 可能性마저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結果적으로 지난 11月 10日 美上院에서 오키나와 返還協定이 84對 6으로 批准에 必要한 三分之二를 上廻하는 多數票로서 可決 批准되었다.

上院의 審議에서 美国政府의 見解가 10月 27日에서 29日에 이르는 3日間 開催된 上院 外交委員會의 公聽會에서 明白히 되었는 데 그 重要한 것을 指摘하면 다음과 같다.

即, ① 美軍部가 오키나와 返還後에도 繼續 오키나와의 基地로서의 重要性을 前提로 그곳에 있는 戰爭支援部隊를 駐屯 시킨다는 것과,

② 7月 1日을 美国이 返還의 時期로 想定하고 있으며,

③ 返還協定에서는 核武器에 對한 日本國民의 特殊한 感情 및 그것을 背景으로 하는 日本政府의 政策에 깊은 理解를 表示한다고

規定에서 매우 애매한데 反하여 이번 公聽會에서는 로저스國務長官이 返還時 核武器가 撤去된다고 確言하였으며,

④ 日本政府의 事前許可 없이는 日本에 核武器를 두지않는다고 하였으며 또 69年에 있었던 닉슨·佐藤 共同宣言을 再確認하여,

⑤ 韓國과 台灣의 安全이 日本의 그것에 對하여 緊要함을 佐藤가 同意하였음을 再強調하고, 또

⑥ 美日安保條約의 테두리 안에서 美軍이 必要한 軍事施設과 區域을 오끼나와에 둘것에 佐藤가 同意하였음을 指摘하고 있다.

그러나 이미 指摘한 바와 같이 美國政府가 그의 立場을 밝히고 또 佐藤와의 合意를 再確認하는 것으로서 將次の 美日間の 軍事協力이 美國의 期待대로 될 것이냐는 問題이다.

오끼나와問題 다음에 重要視하여야 할 問題는 日本의 核武裝에 關한 問題이다. 日本의 核武裝 與否問題는 美日安保體制의 將來의 基本性格을 決定하는 가장 重要한 問題이다.

日本의 核武裝問題에 關하여서는 假定的으로 다음과 같은 세個의 可能性을 일단 想定할 수 있으며 그것은 첫째 核武裝을 하지않을 境遇와 둘째 核武裝을 할 境遇 그리고 세째는 美軍의 核武器를 搬入할 境遇가 그것이다.

① 日本이 技術 및 財政上의 能力이 있어도 核開發을 하지않을 境遇이다. 日本의 核武裝의 回避에는 美國에 依한 核雨傘의 提供·有事時의 核搬入의 保障이 必要 不可欠의 條件으로 되어 있다. 美日安保體制 下에서 日本이 今日起까지 核武裝에서

外面해 왔음은 于先 첫째로 对美紐帶에 依하여 核雨傘이 提供되어 왔다는데 基本的인 要因이 있으나 其他에도 많은 副次的인 要因이 있다. 即 憲法上의 制約을 비롯한 国内 政治的 要因과 더불어 核武器가 軍事的으로 반드시 不可欠의 武器나에 对한 日本의 立場, 日本은 国土가 狭少하여 都市에 集中되어 戰略的인 縱深이 없기 때문에 核攻撃에 脆弱하며 따라서 核武器를 開發해도 第2 攻擊能力이 없다는 点, 그리고 日本의 核武装이 隣國에 必要以上の 刺戟을 준다는 事 등이 그것이다. 專門家들의 計算에 依하면 原爆 50個와 爆撃機를 組立시키는 最少限의 核武装費는 不過 4億5,000万弗이다. 따라서 每年 1兆円 (28億弗)의 國防費를 投入한다면 4~5億弗의 負擔은 그리큰 苦痛이 되지 않을 것이다. 万一에 日本이 英·獨·仏처럼 國民總生産의 4~5%를 國防費에 支出하면 69年現在 日本의 國民總生産이 57兆8,000億圓이므로 그의 5%는 約 80億弗로서 仏蘭西는 고사하고 中共의 推定 國防費를 上廻하게 될 것이다. 이미 第4次防에서 年間 1兆円 以上の 國防費를 支出하게 될 日本의 実情에서 본다면 財政的으로나 技術的으로 核開發이 可能하고도 남음이 있다.

② 日本이 核武装을 할 境遇이다. 이미 指摘한바와 같이 日本이 財政的으로나 技術的으로 그 能力이 있어도 核武装을 하지 않는 것은 美国에 依한 核雨傘의 提供, 核武器에 对한 戰略的인 意味賦与, 国内 政治的 要因, 軍事的으로 第2擊 能力을 가질 수 없는 地理的 条件 그리고 國際政治的 配慮 등이 그 要因으로 되어 있다. 따라서 万一에 日本이 核武装을 하게 된다면 그 動機로서

① 美国에 依한 核雨傘 提供의 撤廢,

㉔ 美国의 核雨傘에 對한 信賴感의 減少,

㉕ 駐日美軍의 完全撤収, 그리고

㉖ 關係惡化에 따르는 基本的인 對美 不信任等

을 들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動機와 더불어 日本 自体의 内部的인 變化要因을 日本의 核武裝의 可能性에 對한 背景으로 指摘하는 論者도 적지않다. 即 첫째로 日本의 經濟發展・核武裝의 潛在能力・民族主義 또는 軍事主義路線이 서로 結合되어 核武裝에 歸着한다는 것이다. 둘째 憲法上으로도 防禦的인 核保有가 可能하다는 見解를 日本政府가 表明하게 되었다는 點이다. 셋째 數次에 걸친 自衛力 整備計劃에 依한 自主的인 自衛能力의 增大傾向이 核武裝을 刺戟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넷째로 核아레르기의 解消와 世代交替가 漸次的으로 이루어지므로서 核武裝을 要하게 한다는 것이다.

③ 緊急時에 美国의 核武器를 搬入할 境遇이다. 이것은 勿論 美日安保體制가 持續되는 限 事前協議의 對象이 된다. 그러나 그 可能性을 全적으로 排除할 수 없다는 것이다.

위에 指摘한 세個의 可能性을 想定할 때 70年代 後半期에 日本은 그의 安保를 爲하여 다음과 같은 세가지의 選擇에 直面하게 될 可能性이 나오게 된다. 即 첫째 美日安保體制의 撤廢 또는 그 基本性格의 變化 때문에 独自の인 核開發이 不可避하게 되거나 둘째 美日安保體制의 強化에 依하여 美国의 核雨傘을 信賴하며 그 有事時의 搬入을 試圖하거나 또는 現在와 같이 美日安保體制下에서 非核三原則을 堅持하는것이 그것이다. 이와 같은 日本의 選擇은 基本的으로 다음과 같은 두가지에 歸着한다. 即 첫째로 日本이 앞

으로도 經濟力에 相應하는 軍事力의 保有에서 外面할 것인가 또는  
둘째 自主的인 軍事的 姿勢로 轉換할 것이냐의 問題이다. 그리고  
이 選擇은 結果的으로 日本이 對美同盟의 内部에 머물러 있을 것  
인가의 問題에 歸着한다.

美日安保條約은 美國의 立場에서 본다면 두가지의 目的 即 戰後  
에는 對中共 威脅에의 對処를 爲한 것이었으며 現在에 있어서는  
日本의 軍國主義 防止 即 核武裝의 防止에 그 主要한 目的이 두  
어져 있다. 그러나 이미 世界 第3位의 經濟大國으로서의 能力을  
가지게된 日本과 美國 과의 關係는 이미 戰後에 있어서와 같은 保  
護와 被保護의 關係일 수 없게 되었으며 美日關係는 現在 惡化狀  
態에 있다. 日本이 核武器를 生産할 수 있는 技術的 財政的인  
能力을 가지고 있으며 다만 生産을 爲한 意思가 없을 따름이다.  
따라서 將次에 있어서도 日本이 核武器를 生産치 않는다는 保障은  
決코 없다.

이미 日本이 核武裝에 要하는 事前過程을 示唆하는 몇個의 事例  
를 보여주고 있다. 即 그 첫째는 核·非核兩用武器를 採用하고 있  
다는 點이다. 現在 日本은 兩用武器로서 地對空 미사일 (나이키·  
하큐리즈)를 開發하고 있거니와 이것은 核使用이 可能하다. 그러  
나 日本自衛隊는 被攻擊을 憂慮하여 核使用에 必要한 附屬品을 除  
去하여 나이키J型化하고 있을 따름이다. 둘째의 過程으로서 指摘할  
수 있는 것은 艦艇動力의 原子力化에 關한 것이다. 이미 自衛隊  
는 民間商船의 原子力化를 始作하였다. 따라서 大型商船을 原子力  
化하면 原子力潛水艦의 保有가 可能하며 또 이 事實에 對하여서는



日本政府가 国会에서 答辯까지 하였다.

다음에는 對外政策에 關한 問題가 있으며 그것은 具體적으로 中共·台灣·韓國에 關한 問題를 包含하고 있는바 그 中에서도 가장 重要한 問題로 촉박한 것은 中共問題였다. 日本이 美日安保體制下에 있는 限에 있어 中共·台灣·韓國에 關한 問題는 日本으로서는 美國의 政策的인 테두리에서 벗어나서 自由로 그 立場을 定立할 수 없는 問題이기는 하다. 中共·台灣問題에 對하여서도 日本은 基本的으로 美國과 原則적인 立場을 같이 하여 왔으나 特差的인 面에서 立場의 差異를 보여주고 있다. 日本의 立場은 短期的으로 는 台灣에 對한 既得權을 確保함과 同時에 長期的으로는 對中共 關係改善에 依하여 友好關係를 維持하는데 있다. 따라서 日本은 台灣과는 1952年에 平和條約을 締結하여 國府를 正統政府로 承認하고 友好協力關係를 維持하는 反面에 中共에 對하여서는 事實上的 存在를 拒否할 수 없다는 點에서 政經分離의 原則에 依하여 貿易 및 非公式關係를 維持해 왔다. 그리고 代表權問題에 있어서는 二重 代表制와 台灣追放에 對한 逆重要事項 指定方式에 對한 美國의 立場을 支持하는데 있어서 先봉隊의 役割을 하였다.

그러나 日本은 性急하며 無條件적인 對中共關係의 正常化는 中共과 的 貿易擴大에 依한 利益增大 보담도 台灣에 對한 既得權의 損失이 더 크다고 評價하고 있다. 그리고 그 理由는 다음과 같다. 即 첫째 短期的으로 보아 70年代 現在에 있어 中日貿易 보담도 日台貿易이 量的으로 훨씬 大規模이며 總額 9億5,300萬弗에 達하고 있다. 따라서 性急한 日中正常化에 依하여 台灣이 對日斷交를

斷行하면 台灣과의 貿易을 喪失할뿐만 아니라 既存投資를 沒收할 可能性이 있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中共의 國民所得이 1人당 近 100弗로 推定되는 反面에 台灣의 그것은 300弗로 推定되므로 서 將次에 있어서도 日中貿易이 日台貿易에 비추어 그 展望이 적다는 것이다. 이리하여 日本으로서는 原則적으로 日中國交 正常化를 是認하면서도 그 順序와 條件을 重要視하려는 態度이다. 둘째로 長期的인 面에서도 이것과 類似한 評價를 하고 있다. 人口面에서 보아 中共이 近 8億인데 反하여 台灣이 1,400万名으로 平面的으로 본다면 人口 및 資源面에서 台灣보다도 中共이 潜在的 市場으로 더 큰 意義를 가진다. 그러나 人口와 資源面에서의 크기가 그대로 市場性에 連結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中共이 共產國家이므로 國際分業을 認定하지 않으며 貿易을 國家가 管理하므로 政治的 目的에 依하여 左右되기 때문이라고 본다. 뿐만 아니라 輸送面에서도 對中共 交易이 有利치 않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現在 陸上輸送보다도 海上輸送이 廉價하기 때문에 中共의 奧地에서의 運搬보다도 港灣施設의 具備時 南美나 濠洲에서의 輸送이 有利하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다. 또 經濟的 見地에서도 日本은 類似한 評價를 하고 있다. 69年度 中共의 對日 貿易依存도가 16%인데 反하여 日本의 對中共 貿易依存도는 2%에 不過하다. 이것은 日本에 對한 中共의 必要性이 中共市場에 對한 日本의 必要性이 더 크다는 것을 意味한다. 日本이 中共으로 부터 原料를 大量 購入하며 中共은 西歐로 부터의 購入보다도 日本으로 부터의 購入이 더 有利하다. 따라서 日本으로서는 日本이 中共을 必要로

하는것 보다는 몇倍 더 中共이 日本을 必要로 하며 中共보다도 日本이 弱者의 立場에 있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日本으로서는 台灣에 對한 短期的인 利害와 中共에 對한 長期的인 利害에서 보아 原則上 對中共 關係改善을 必要視하나 台灣과 中共의 兩者에 對한 利害를 다같이 確保하려는 心算에서 對中共 關係改善에 躊躇해 왔던것 만은 事實이다. 그리고 이러한 躊躇에서 닉슨의 中共訪問 發表에 依한 닉슨·속크를 日本은 적지않게 받게 되었다. 이러한 美日間の 對中共問題 그리고 그의 裏面인 台灣問題에 對한 時差上의 立場의 差異는 어느 面에서 본다면 日本이 中共을 純全히 交易關係에서 만이 보고 있다는데 根源하는 問題이며 또 이것은 日本의 對外援助政策이 現在와는 달리 民間水準에서의 輸出信用 爲主의 援助에서 政府의 直接投資에 依한 開發을 爲한 財政援助 爲主로 轉換하지 않는限 脱皮하기 어려운 与件이다.

마지막으로 安保面에서의 美日間の 主要問題의 하나는 韓國·台灣의 防衛를 爲한 協力問題 이거나와 이것은 美日安保体制의 將來의 性格을 規定하는 重要한 問題로서 다음에 論하기로 되어 있으므로 그 重複을 回避하기 爲하여 여기에서는 省略하기로 한다.

### 3. 美日安保体制의 將來

美日安保体制의 將來를 決定하는 重要한 問題는 中共의 威脅에 對한 評價問題, 韓國 및 台灣의 防衛에 關한 問題, 美軍基地의 地

位問題 그리고 日本의 再軍備에 關한 問題이다.

于先 中共의 威脅에 對한 日本의 評價가 무엇이겠느냐가 問題이다. 中共의 存在는 日本의 安保에 對한 威脅要素로 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日本의 繼續 美國의 核雨傘에 머무르는 限에 있어서는 在來式 軍事力에 依한 中共의 威脅을 日本은 地理的으로 보아서도 그리 느끼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日本이 中共으로 부터 느끼는 威脅은 核에 依한 威脅이다. 그러나 中共의 核에 依한 對日威脅이 軍事的인 것이냐 또는 政治的인 것이냐는 생각해 보아야할 問題이다. 勿論 中共의 核武器는 中日戰爭의 可能性이 있다고 前提한다면 軍事的인 威脅이 될 수 있다. 그러나 現實的으로 決定的인 利害對立이 없는限 그것은 軍事的인 威脅이라기 보다는 政治的인 威脅으로서 優先的으로 評價되어야 한다. 따라서 中共의 核武器에 依한 對日威脅은 軍事的인 威脅이라기 보다는 美日同盟關係를 弱화 또는 破壞하기 爲한 政治的인 威脅이 더 크다. 中共이 對日政策의 目標을 日本의 中立化에 두고 日本의 軍國主義의 再現을 繼續 非難하는 것은 美日同盟關係, 韓日關係 그리고 日台關係를 破壞하기 爲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그 非難은 美國의 亞細亞에서의 勢力後退를 틈타서 進出을 企圖하는 日本에 對한 事前 牽制를 爲한 것이기도 하다.

이러한 點에서 日本에 對한 中共의 核에 依한 威脅이 軍事的인 것보다도 政治的인 것이 앞선다면 日本이 中共으로 부터 느끼는 威脅은 日本이 亞細亞政治에 進出함에 있어서 自主的으로 參與하느냐 不然이면 對美同盟을 통해서 參與하느냐에 따라 決定되는 面이 많다. 그러나 日本이 現在와 같이 美國의 軍事活動에 直接 말려들어가는

것을 꺼려하는 限에 있어서는 後者보다도 前者를 扶할 可能性이 많다. 亞細亞政治에서 서로 競争關係에 있는 日中關係에서 본다면 中共이 亞細亞政治에서 손을 뗄리 万無하며 또 그러한 限에 있어서는 日本이 그 安保를 爲하여 對美紐帶에 全的으로 依存할 可能性이 적다. 따라서 이런 可能性에서 日本은 本意던 他意던 間에 独立的인 軍事路線에 對한 壓力을 받게 될 것이다.

韓國 및 台灣의 防衛에 對한 美國의 期待에의 日本의 反應은 至極히 消極的이며 애매하다. 69년에 있는 닉슨·佐藤 共同宣言은 韓國과 台灣의 安保에 對한 日本의 特別한 關心을 美國이 公式的으로 確認시켜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 宣言에 對하여 中共과 北傀는 日本에 依한 美國의 軍事的 役割을 代行하는 것을 憂慮하여 日本 軍國主義를 痛切히 非難한것과는 正反對로 지금 現在로서는 日本이 가까운 將來에 그러한 役割을 代行할 可能性이 거의 없다. 萬一에 韓國에 對한 武力攻撃이 發生했을 境遇에 在來式 戰爭을 美軍이 效果的으로 遂行하기 爲하여서는 日本이 不可欠한 存在이기는 하지만 그 反面에 日本은 또한 中共의 核威脅을 받기쉬운 國家이므로 日本의 立場은 兩面的인 性格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中共이 核威脅에 依하여 日本의 中立化를 企圖한다면 日本에 對한 美國의 核雨傘의 信賴性을 테스트하는 것이 되어 駐日美軍基地의 地位나 再軍備問題에 日本이 直面하게 된다. 따라서 韓國을 비롯한 極東에 軍事的 危機가 發生되면 駐日美軍基地의 使用問題는 日本의 國內政治에 危機를 造成하기에 充分한 要因이 될 것이며 또 美日關係에 混亂을 가져올 可能性이 濃厚한 問題이다.

駐日美軍은 美日關係의 政治的 基盤이며 日本防衛에 對한 美國의 關心의 象徴이기도 하다. 따라서 駐日美軍의 大幅的인 減少는 日本防衛에 美國의 關心의 減少로서 理解되는 面이 있다. 이에 對한 日本의 政策的 対応은 自衛力의 增強을 加速化하는 方向으로 나타날 수 밖에 없으나 그 結果가 日本防衛에 對한 日本의 負擔의 增加에 끝일 것인지 또는 美國에서 完全히 獨立된 安全保障의 努力에 發展할 것인지의 與否는 美日關係의 展望如何에 따라 決定될 것이지만 韓國防衛을 爲한 直接的인 協力姿勢를 取할 可能性은 거의 없다. 核雨傘의 提供에 對한 信賴性도 基本的으로 基地와 兵力駐屯에 依한 防衛公約에 依하여서만이 保障이 된다. 駐日美軍이 이미 常時駐屯에서 有事駐屯으로 轉換하고 있으며 이미 美軍의 實質的인 戰鬪力의 一部를 除外하고 71年度까지 全面撤收하기로 合意한 오늘날 美軍基地의 大幅減少는 日本에게 核開發을 刺戟하는 要因이 된다. 이렇게 되면 美國으로서는 日本의 反美感情을 누르고 基地를 維持할 것이나 不然이면 基地를 縮少시켜 日本에 對하여 自主防衛政策에 壓力을 加할 것이나 政治的인 兩者拮一에 直面하게 된다. 日本에 美軍基地의 一部나마 繼續 남는다는 것은 日本의 立場에서 본다면 核雨傘의 提供에 對한 人質로서의 價值가 있는 反面에 日本이 아닌 極東에서의 美國의 軍事活動에 日本으로 하여금 말려들게 할 것이다. 따라서 韓國과 같은 不安地域에서 美軍을 어떻게 使用할 것이냐에 對하여 美日間에 基地使用問題를 둘러싸고 重大한 對立이 일어날 可能性이 있다.

美日協力關係의 基本的인 問題點은 첫째로 利害의 不一致가 漸次

的으로 나타나고 둘째로는 日本의 對美協力이 必然的으로 美國의 影響力을 擴大시키는 結果 強大國을 刺戟하여 重細區의 緊張을 높 이므로서 日本 自身이 冷戰에 말려들어 가는 것을 矚目하는데 있 다.

戰後에 美日關係의 基本이었던 經濟關係에 있어서 貿易・資本의 自由化에 關하여 利害의 對立이 있어도 그리 큰 衝突을 免할 수 있었다. 그러나 軍事關係는 經濟關係와는 그 性格을 달리하는 面 이 있다. 美國이 超大國이므로 日本이 美國과 軍事關係를 가진 다 는 것은 곧 日本이 美國의 全世界的인 戰略的 關心과 戰略體制 속에서 全世界的인 行動과의 聯關性을 가지는 것을 意味하게 된다. 그러나 日本은 對中共關係 때문에 이러한 美國의 軍事行動에 말려 들것을 矚目하고 있다. 日本側의 이러한 態度는 日本이 世界 第3 位의 經濟大國이 되므로서 그 国力이 成長하여 對美關係에서 그 利害가 一致되지 않게 되어가고 있을뿐만 아니라 過去와 같이 利 害의 不一致를 甘受할 姿勢에도 있지 않다는데 要因이 있다. 日 本에 對한 美國과 中共의 期待는 本質的으로 相反되고 있다. 日 本은 美國으로 부터 軍事協力에 對하여 至極히 消極的인데 對하여 非難받고 있는 反面에 中共으로 부터는 그의 工業力과 基地를 美 軍의 軍事目的을 爲하여 寄與시키고 있는데 對하여 非難받고 있다. 美國이 極東의 安全保障을 日本과의 軍事協力關係에 直接 連結시켜 서 考慮하고 있는데 反하여 日本은 經濟關係를 통한 美日關係의 維持를 追求하고 있다. 日本은 韓半島의 安全이 日本의 그것에 直結되며 萬一에 韓國이 그의 敵對勢力의 支配下에 들어가면 軍事

的 威脅이 空間的으로 接近함을 意味할뿐만 아니라 質的으로도 制海權과 制空權이 重大한 挑戰을 받게 된다는 것을 是認한다. 그러나 日本은 韓國의 安保와 日本의 安保와의 關聯性과 正當性을「絶對的」인것으로 생각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日本은 設使 韓半島에 統一國家가 實現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곧 日本에 對한 威脅으로 된다고 보지 않으며 그것과의 友好關係의 樹立을 可能視하는 反面에 友好關係가 樹立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日本에 對한 如此 큰 威脅이 되지 않는다는 立場에 서 있는 것으로 理解된다.

이리하여 美國이 닉슨·독트린에 依하여 對日軍事關係의 發展과 強化를 期待하는데 反하여 日本은 닉슨·독트린을 全的으로 政治的인 側面에서만 理解하고자 한다. 따라서 위에 言及된 美日間에 介在된 諸問題에서 본다면 적어도 70年代 後半期에 美日關係에 相當한 變化가 올것으로 予想된다.



### 三. 日本의 防衛計劃과 防衛路線

#### 1. 防衛計劃과 長期目標

日本은 第1次防衛計劃(58~60年), 第2次防衛計劃(62~66年), 그리고 第3次防衛計劃(67~71年)을 經由하면 來年부터 第4次防衛計劃(72~76年)에 突入하게 된다.

第4次防衛에 依한 防衛力整備의 結果 兵力規模는 다음과 같은 것으로 된다. 即 4次防에서의 陸上自衛隊의 兵力의 目標은 18万이며 世界에서 第21位에 該當한다. 이와 陸上兵力의 量的인 劣勢를 陸上 및 海上의 機動力과 火力等の 效果的인 兵力整備과 運營에 依하여 補完하고자 하면 따라서 兵力의 物量的인 把握만으로서는 그 意味가 적다 그리고 4次防에 있어서의 航空兵力의 整備目標은 約 920機이며 이것은 世界에서 第14位에 該當한다. 航空機의 境遇에도 量보다는 質이 問題視되는데 日本의 航空兵力의 實戰的인 質은 美蘇를 除外하는 다음 級속에 들어간다고 評價되고 있다. 미사일에 있어서는 重要地域에의 配置를 爲한 約 30個의 나이키·사이트의 生産을 目標로 하고 있다. 海上兵力에 있어서는 3次防의 完成時의 目標가 17万4000屯의 艦艇인데 對하여 4次防의 完成時에는 24万7000屯으로 上昇하여 3次防에서 世界 第13位던 것이 4次防에서는 世界 第6位로 된다. 그러나 日本의 自衛力整備計劃은 現在에 있어서 量的인 것 보다는 質的인 補完에 重點이 두어져 있으므로 그 數量의 劣勢에 對한 評價만으로서 充分치 않음은 勿論 또한 그들은 이러한 整備計劃을 長期的인 整備目

標 下에서 實施하고 있다는 點을 우리는 看過해서는 아니 된다. 要는 現在의 世界水準에서의 等位가 問題가 아니라 質的인 面과 發展의 템포가 더 問題視되어야 한다.

第3次防까지의 「在來式 武器에 依한 局地戰以下의 侵略事態에 対処한다」는 防衛構想은 「限定된 局地戰」을 前提로 한 것이며 이 境遇 1980年代 初期를 目標로한 兵力은 大体로 다음과 같은 것 으로 評價되며 이러한 量的인 規模에 到達한 後에는 防衛力의 質的인 強化를 圖謀할 것으로 보고 있다. 即 陸上兵力은 4次防의 目標과 大差없는 18萬으로 評價되나 火力과 機動力의 充實化및 裝備의 近代化를 行할 것으로 본다. 海上兵力은 艦艇 30餘萬屯 으로 그 外에 對空, 對艦미사일의 整備, 對潛水艦機能의 充實化가 이루어 진다. 航空兵力은 約千機로서 量的으로는 現在와 大差없으나 機種의 近代化가 이루어지고 요격, 對地支援戰鬪, 偵察, 輸送機能 을 強化함과 더불어 對空미사일의 近代化와 增強이 이루어진다.

위에 指摘한 長期目標은 勿論 大體的인 予想이며 이와 같은 數字가 公式的으로 発表되지는 않았으나 防衛庁内部에서 檢討된 數字이다. 4次防의 目標은 이 와같은 長期目標에 이르기 爲한 中間目標이며 長期目標가 達成되면 다음과 같은 防衛力을 日本이 가질 것으로 期待되고 있다. 即 ① 地上 戰 對処에 있어서 中規模의 奇襲攻擊에 恆時 對処할 수 있으며 따라서 몇 個師團에 依한 特定方面의 攻擊에 對하여서 比較的 早期 에 驍退할 수 있으며 萬一에 驍退할 수 없는 境遇라도 相當한 期間에 있어 持久戰鬪를 할수 있고 또 이것과 並行하여 行하여지 는 全國的인 小規模攻擊에도 對処할 수 있게 된다. ② 對空戰鬪對

처에 있어서 敵의 被害와 日本自體의 被害를 적어도 同等한 程度에서 維持하므로써 敵에 依한 航空攻撃力을 漸次 弱화시킬 수 있는 能力을 가지게 된다.

그리고 (3) 海上戰鬪 對처에 있어서는 對潛水艦等의 探知, 擧沈의 度를 上昇시켜 敵의 自由로운 行動을 相當한 水準에서 減殺시킬 수 있는 能力을 가지게 된다.

이러한 長期目標의 防衛力은 別個로 치더라도 日本은 于先 4次防의 防衛費에서 보더라도 世界 第7位로 되어있다. 따라서 日本의 長期的인 防衛力의 目標은 4次防의 防衛構想속에도 示唆되어 있다. 元來의 4次防의 特徵의 하나는 防衛構想으로서 專守防衛를 明確히 한데 있으며 그 立案趣旨 속에 「여태까지의 防衛力을 基盤으로 하여 在來式 武器에 依한 局地戰事態에서의 侵略에 對處할 수 있는 專守防衛의 態勢確立을 爲하여 이 原案을 作成했다」고 되어 있다. 또 基本構想으로서 「防衛는 있을 수 있는 侵略事態에 對하여 專守防衛로서 效果的으로 對應하는 防衛力을 整衛維持한다」고 하여 專守防衛를 強調하였다.

그러나 事實은 이것과는 相當한 差異가 있다. 3次防까지의 防衛構想에서 日本을 侵略해 오는 防衛對象國 即 敵을 上陸地點에서 迎撃하기로 되어 있었다.

따라서 이것은 아슬 아슬한 瞬間에 있어서의 迎撃을 基本的으로 想定한 것이다. 그러나 4次防에서는 보다 積極的인 姿勢에서 公海上에서 迎撃하도록 變化되어 있다. 이 上陸地點에서의 迎撃으로부터 公海上에서의 迎撃으로 變化했다는것은 基本構想속에서도 「限

定된 直接侵略에 關하여서는 우리의 防衛力을 가지고 第一義적으로 対処하며 우리나라의 周邊에서 必要한 限度에서의 航空優勢, 制海를 確保하면서 被害의 局限, 侵略의 早期排除에 努力한다」고 하는 表現속에 明白히 나타나 있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日本周邊에서의 公海에서 制空權과 制海權을 確保하는 防衛構想이 明確히 表現되어 있다.

이러한 防衛構想에 따라 4次防에 있어서는 裝備面에 있어서도 上陸沮止作戰에서 變化하여 公海上의 迎擊作戰用에 그 重点이 두어지고 있다. 그 一例로서 航空機를 들수 있다. 4次防에서 採択한 F4E 팬텀戰闘機는 爆彈積載能力이 클뿐만 아니라 航統距離가 길며 따라서 單純한 戰闘機라기 보다는 戰闘爆擊機라고 하는 것이 可當하다. 이러한 作戰概念의 變化는 國會에서 「公海에서 迎擊하는 것은 違法이 아니다」라는 日本 政府側의 答弁에서도 잘 나타나 있다.

이리하여 4次防은 專守防衛라는 名目下에 實質적으로는 上陸沮止作戰에서 公海上의 迎擊作戰으로 作戰概念이 變化하고 또한 防衛構想을 制空權과 制海權의 確保에 두고 있다. 그 中에서도 制空權보다도 더욱 制海權의 確保에 力點을 두고 있다. 防禦型에서 攻撃型으로 轉換하기 爲한 質的인 變化를 이르고 있다는 것이다.

## 2. 防衛計劃과 防衛産業

### 가. 防衛産業의 發足

戰後 日本의 防衛産業은 修理産業으로 出發하였다. 美軍의 弗防衛計劃에 따라 日本製鋼, 相模工業, 그리고 富士自動車工場이 美軍車

輛의 修理指定工場으로 되어 곧 航空機의 修理 그리고 戰車修理에  
로 돌아갔다.

韓國戰爭의 勃發은 日本의 防衛産業을 刺戟하는 契機로 되었는데  
이것이 所謂 美軍의 「特需」이다. 韓國戰爭의 特需는 처음에는  
自動車, 石炭, 시멘트 등의 復興特需가 中心이 되었으나 52年頃 부터  
는 武器 彈藥 등의 武器生産, 修理가 始作되어 57年6月에 이르기  
까지 5個年間 繼續되었다. 52年3月에는 美日講和條約의 發効에  
앞서 在日美軍司에서 武器生産禁止令을 解除하여 武器生産을 許可하는  
指令을 내렸다. 이에 따라 日本은 防衛를 爲한 法律體系를 整備  
하기 始作하였다. 1951年에 武器工業會의 前身인 日本技術協力會,  
1952年에는 「經団聯」의 經濟協力懇談會 밑에 防衛生産委員會가  
各々 設置되고 法制上으로 52年에 「航空機製造法」 그리고 53年에  
「武器等製造法」이 公布되었다. 이리하여 53년부터는 艦艇 그리고  
54년에는 航空機의 國內調達이 始作되어 漸次 裝備의 國産化體制로  
들어가게 되었다. 1956年 以來 美國의 對外軍事販賣法에 따라 美  
軍의 在庫 또는 美軍의 調達을 通하여 原則적으로 費을 支払하여  
美國으로 부터 裝備를 購入하는 形式의 有償援助(Foreign Military  
Sales)를 받아 왔는데 이것을 FMS라고 한다. 이것은 現在에도  
繼續되고 있어 FMS에 依한 調達が 入手한 主된 品目은 航空機部  
屬品, 나이키, 호크 등의 裝備品이다. 1963年12月 美國의 對外援助  
法이 改正되어 日本을 包含하는 先進國에 對한 無償援助가 中止케  
되었다. 이러한 가운데 自衛力 整備計劃과 防衛産業과의 關係는  
密接하게 되었다. 그러면 다음에는 自衛力 整備計劃과 防衛産業과

의 關係를 보기로 한다.

#### 나. 第1次 自衛力整備計劃과 防衛産業(58~60年)

1次防에서 3次防에 이르는 13年間に 있어서 日本의 自衛力 整備計劃은 美製中古武器를 어떻게 國產化하느냐의 裝備轉換計劃이 였다고 할수 있을 것이다.

그 中에서도 第1次防의 期間中の 日本의 防衛産業의 特徵은 ① 特需보다도 自衛隊를 爲한 것이 많아졌고 ② 無償援助보다도 國內調達額이 많아 졌다는데 있다. 特需에서 防衛庁需要에로 轉換하기 始作하므로서 自衛隊의 裝備化가 始作되었다.

當時에 防衛産業者들의 期待는 1954年3月에 「經団聯」의 防衛生産委員會가 「防衛生産態勢의 整備에 關한 要望意見」을 政府에 提出한데 잘 나타나 있다. 卽 이 文書는 ① 防衛産業에 關한 政府의 基本方針을 確立하며 ② 年度別 發注를 하지않고 長期的인 防衛生産을 計劃적으로 推進하며 ③ 自衛隊의 需要 外에 東南地域의 自由諸國에 對한 武器輸出이라는 두個의 需要에 防衛産業이 配慮해야하며 ④ 防衛産業이 一般産業에 對한 波及效果를 가지므로 美軍의 技術指導나 域外調達을 積極化해야 하며 그리고 ⑤ 政府가 研究開發을 爲한 特別施策을 實施해야 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이 와 같은 業者의 期待는 있었으나 第1次防 時代에는 그 殆半이 美軍의 中古武器와 MSA에 依한 武器의 無償援助에 依存하였다.

그러나 이 時期에 있어서 MAS協定에 依하여 群小 武器生産業者의 淘汰를 爲한 防衛産業의 大企業에의 集中化傾向을 보여주기 始

作했다. 防衛産業이 修理産業으로서 始作되어 勞賃의 買上을 主体로 하던 段階에서 第1次防은 自衛力 整備計劃에 依하여 生産段階의 初歩段階에 들어갔으며 第2次防以後에는 生産段階로서의 傾向을 더욱 強化했다.

#### 다. 第2次 自衛力整備計劃과 防衛産業(62~66年)

艦艇과 航空機의 國産化를 除外하면 第1次防의 期間中에는 裝備의 殆半은 美國의 無償援助에 두어 졌으며 따라서 防衛力の 質的 強化는 第2次防에 引繼 되었다.

第2次防에 있어서의 武器의 調達方式은 세가지方式이 取하여 졌으며 ① 戰車, 裝甲車, 機関銃, 小銃 그리고 艦艇等은 純國産化方式을 取하고 ② F104 제트戰鬪機, 바커·시스템, P2V 對潛哨戒機等은 美日經費分擔이나 라이선스導入에 依存하여 그 一部는 國産化하며 다른 一部는 輸入 또는 援助에 依存하고 ③ 나이키, 호크는 無償援助와 有償援助에 다 같이 依存하였다. 그리고 調達契約面에 있어서는 陸上自衛隊의 裝備品の 調達을 爲하여 長期 一括契約方式을 取하므로써 業者의 長期契約의 要望에 應하기 始作했다. 이와 같이 第2次防에 있어서 國産化를 爲하여 보다 큰 計劃을 試圖했으나 亦是 美國에의 依存으로 無償援助 또는 經費分擔으로 每年 平均 180 億圓, 5 個年計劃에서 總計 900 億圓의 援助를 可想했으나 1964 年부터 美國이 對日援助를 中斷하게 되어 第2次防의 期間中 美國의 援助実績은 497 億圓이 되어 防衛産業을 더욱 刺戟하게 되었다. 그러나 第2次防에 對하여 67 年度에 行한 調査結果에 依하

면 防衛五部門 調査対象会社 82 個社 中에서 三菱重工業을 비롯하여 日本電機, 川崎航空機, 石川島 播磨重工業 등의 五個会社가 66年度 防衛五部門 生産高에 있어서 生産集中度 52.38%를 차지하므로서 生産会社가 거의 固定되므로서 生産의 集中化傾向을 보여 주었다.

또 輸入依存度에서 본다면 60年度 22.4%, 61年度에 21.7%, 62年度에 30.6%였는데 對하여 第2次防의 全期間中에 있어서의 防衛庁의 調達契約에서 본다면 18.43%로 低下되어 國産化率이 增大되었음을 示唆하고 있다.

#### 라. 第3次自衛力整備計劃과 防衛産業(67~71年)

第3次防의 特徵은 裝備의 近代化를 爲한 研究開發과 國産化計劃에 重点을 두고 있다는데 있으며 防衛戰略面에서의 構想 보다도 裝備計劃이 如前히 爲主로 되어있다. 第3次防 以後에 있어서는 第1, 第2次防의 期間中에 繼續되어 오던 研究開發이 生産段階에 들어가며 따라서 老朽化된 生産施設을 更新해 나갔다. 設備投資는 第1次防에서 第2次防 그리고 第3次防으로 倍增되어 第3次防에서는 거의 完了되었다. 第3次防은 將次的인 展望에서 生産設備를 거의 完了하여 國産化體制로 移行하기 爲한 技術者의 養成研究開發을 하나의 段階로 到達시키고자 하는 姿勢를 取하고 있다.

第3次防은 新武器의 國産化를 爲하여 地對空 미사일, 호크에 對하여서는 東芝電機, 三菱電機, 日本電機가 國産化를 担当하고 또 나이키에 對하여서는 三菱重工業, 日本電機, 東芝電機가 國産化를 担当하게 되었다.



第3次防의 予算規模는 2兆 3400億圓으로서 그중 裝備更新과 新裝備費는 合計하여 約 1兆 2000億圓을 支出하기로 되었으나 나이키·하큐리즈의 地上器材는 主로 美國의 有償援助에 300億圓, 航空機修理用的 部屬品輸入에 700億圓을 充當하므로서 日本 國內生産者에의 調達總額은 約 9200億圓으로 된다. 主要裝備品은 航空機購入費 1,500億圓, 艦船建造費 1,100億圓, 地对空 誘導彈 800億圓, 戰車, 裝甲車, 火砲等이 500億圓, 彈藥 800億圓 合計 4700億圓으로 된다.

#### 다. 第4次 自衛力整備計劃과 防衛産業(72~76年)

第4次防의 計劃은 지난 4월에 防衛庁이 그 原案을 決定發表하여 政府에서 檢討中인바 그 原案에 依하면 다음과 같은 特徵을 가진다.

첫째로 國産化에 依한 新機種의 登場을 볼수 있다. CI輸送機, T2超音速高等練習機, F8-T2地对地 攻撃機, AEW(早期 警戒機)의 開發, PXL(次期 对潜 哨戒機)의 開發等이 그것이다. 海上에서도 〇〇〇屯級の DLH 2隻이 비로서 登場하며 105밀리 砲搭載의 新型戰車도 나타난다. 뿐만 아니라 라이선스生産이기는 하지만

F4EJ, RF4E機等 第3次防에서 始作된 것의 量産이 始作된다.

第4次防의 總經費는 原案에 依하면 5兆 1960億圓이며 그 中에서 人件費와 食糧費는 1兆 7025億圓이며 事業經費는 3兆 4925億圓이다. 主要裝備인 艦艇航空機 戰車 그리고 彈藥에 充當되는 것은 約 1兆 5000億圓으로 評價되며 이것은 第3次의 4900億圓에 對比하면 約 그것의 3倍의 需要가 있는 것으로 보아 無妨할 것이다.

### 3. 防衛産業의 實態

日本の 防衛産業의 實態를 보기 爲하여 첫째로 工業生産에서 占하는 防衛生産의 比率을 보기로 한다.

工業生産에서 占하는 防衛生産의 比率

品 目	66年度	67年度	68年度	69年度
船 舶	2.0%	1.8%	2.1%	2.5%
航 空 機	69.6	65.2	55.6	58.5
車 輛	0.5	0.4	0.3	0.3
武 器 彈 藥	98.3	98.4	98.9	99.3
電 氣 通 信 機 器	0.8	0.7	0.4	0.5
石 油 製 品	1.2	1.1	1.0	0.9
全 体	0.5	0.4	0.4	0.4

이 票에서 보면 첫째로 日本の 工業生産에서 占하는 防衛生産의 比率은 武器彈藥이 第1位이며 第2位는 航空機이며 나머지의 比率은 낮다.

둘째로 調達金額으로 보면 第一位가 航空機이며 火器彈藥等の 武器, 레이다, 소나, 通信機器等の 電子武器, 船舶, 車輛의 順位로 되어 있고 機械, 纜維等은 以外로 적다. 그리고 航空機, 武器, 電子機器, 船舶, 車輛의 五部門이 全体の 75%를 차지하며 國內調達武器의 主力으로 되어 있으며 이것에 燃料를 加算하면 全体の 90%를 차지한다.

세계는 中央調達契約高에 関한 것이다. 調達契約高에 있어서 第一位는 三菱重工業이며 第二位가 川崎重工業, 第三位가 石川島 播磨重工業, 第四位가 三菱電機이다. 이러한 契約高에서 占하는 順位를 第2次에서 부터 본다면 三菱重工業이 1961年 및 1962年에 있어서 만을 除外하고는 늘 毎年에 있어서 第一位를 占하고 川崎重工業, 石川島 播磨重工業, 三菱電機, 그리고 日本電機가 그 다음의 順位를 占하고 또 이들 会社가 防衛生産에 있어서 50%以上을 占하고 있어 日本의 防衛産業이 企業의 集中性을 나타내고 있음을 立証한다. 그 反面에 上位会社 가운데 伊藤忠商事를 비롯하여 住友商事, 三菱商事와 같은 貿易会社가 包含되어 있음은 國産化가 困難한 武器나 必要 部屬品の 輸入의 必要性이 있음을 示唆한다.

日本의 防衛費의 커다란 特徵의 하나는 當該年度만으로서는 그 真相을 把握하기 어렵다는데 있다. 日本의 防衛費는 年次計劃에 依하여 定하여지며 歳出의 大部分이 既定經費에 依하여 充當되며 그 外에 國庫債務負擔行爲, 繼續費等の 形式으로 次年度에의 支出의 移越이 行하여진다. 71年度 予算에서 約 6,709億中에서 純增加分은 約 961億圓이지만 그中 470億圓은 人件費의 当然增加分이며 約 380億圓은 國庫債務負擔行爲와 繼續費의 歳出化에 充當된다. 그리고 注目할 것은 一般會計支出外에 國庫債務負擔行爲와 繼續費로서 新規分 2,564億圓, 既定分 1,143億圓, 合計 3,700億圓이 計上되어 있다는 点이다. 따라서 71年度 予算의 防衛費는 實質的으로 約 1兆 400億圓의 巨額에 達하고 있다. 新規의 國庫債務負擔行爲, 繼續費의 次年度負擔分은 69年度 1,662億圓, 70年度

1,287 億円에서 71 年度에는 2,564 億円で急増하고 있다.

品目別調達実績

課 別	品 目 別	件 数	金 額
契 1	武 器 1	218	10,432
	武 器 2	18	983
	通 信	2,917	28,055
	計	3,153	39,470
契 2	需 品 等	1,806	5,032
	織 維	459	3,204
	銃砲彈化學	391	8,868
	燃 料	1,123	9,832
	計	3,779	26,935
契 3	船 舶	97	20,276
	機 械	570	2,013
	車 輛	265	11,904
	計	932	34,193
契 4	航 空 機	783	55,377
	航空機修理	130	8,798
	計	913	64,175
試 作	試 作 品	52	3,605
輸 入	一 般	974	13,577
	F M S	131	3,639
	計	1,105	17,216
	合 計	9,934	185,594

따라서 일본의 防衛費의 質的인 意味에 關한 것이다. 1970 年度

에 있어서 世界各國의 防衛費를 比較하면 日本은 世界에서 第12位로 되어 있으나 第4次防의 原案에 依하면 最終年度인 1976年度에는 1兆 5,000億 前後로 되어 世界 第7位로 急上昇하게 되어 있다. (勿論 이것은 向後 5年間に 各國의 防衛費가 增大되지 않는다는 前提下에서의 評價이며 各國의 防衛費의 增加率을 考慮하면 日本 伊太利와 캐나다 다음으로 世界 第10位가 된다고 한다) 第4次防의 總經費가 期間中の 推定GNP에 對한 比率은 0.92%이며 第1次防에서는 1.1%, 第2次防에 있어서는 0.93%, 그리고 第3次防에 있어서는 0.80%로 各各 되어 있다. 이에 反하여 美國과 蘇聯에 있어서는 對GNP의 比率이 8~9%이며 其他諸國 가운데는 3~5%의 防衛費를 維持하는 國家들이 많다. 이와 같은 點에서만 본다면 比率上으로는 日本經濟에서 占하는 그 防衛費의 比重은 그리 크지 않다고 平面的으로 評價하기 쉬우며 또 日本政府自身이 對外的으로는 日本軍國主義에 對한 非難을 막고 또 對內的으로는 憲法上의 規制나 左派勢力에 依한 攻讟을 막기 爲하여 防衛費가 日本經濟에서 占하는 比率이 낮다는 것을 골절 들고 나온다. 그러나 이와 같은 平面的인 評價는 後述하는 바와 같이 無意味하다.

다음에 다른 角度에서 日本의 總予算規模에서 防衛費가 占하는 比率을 보면 第1次防에서 10.73%, 第2次防에서 8.28%, 第3次防에서 7.25%이고 그리고 第4次防에서는 期間中の 予算規模를 現在 評價하기 어렵기 때문에 미리 予測할 수 없으나 日本의 評論家들은 大体로 7~8%로 推定하고 있다. 그 反面에 美國과 같이 國家予算에서 防衛費가 높은 比率을 차지하고 있는 一部國家를 除外

하면 世界의 大勢는 一般的으로 10餘%에서 20%를 占하는 國家들이 많다. 1969年現在 年間 國民一人當 防衛費負擔額을 보면 日本이 13弗인데 反하여 美國이 367弗, 蘇聯이 146弗 그리고 仏國西가 110弗이고 英國과 英國이 90弗을 上廻하고 있다.

그러나 防衛費가 予算, 一人當所得, 그리고 國民總生産에서 占하는 比率上的 平面的인 數値만을 評價하여서는 그 質的인 內容을 把握하기 어려우며 따라서 日本의 軍事路線의 方向을 理解할 수도 없다. 이미 言及한 바와 같이 日本의 防衛生産은 그 調達契約高에서 보더라도 企業의 集中性을 나타내고 軍部와 産業界의 密接不可分の 利害關係를 알수 있다 뿐만 아니라 日本의 防衛費가 予算, 一人當所得, 國民總生産에서 占하는 比率이 아무리 적다고 하더라도 日本이 高度經濟成長을 持續하여 世界에서 美蘇다음가는 第三位의 經濟大國이라는 占에서 본다면 GNP의 顯著한 向上에 따라 防衛費의 絶對額 그 自体가 增加되고 있음을 看過해서는 아니된다. 第4次防에 對한 國內外的인 批判도 그 內容에 對한것과 더불어 絶對的인 經費의 規模에 對한 것이며 日本經濟에서 占하는 防衛費의 比率에 對한 것은 決코 아니다.

第4次防에서는 第3次防에 없었던 裝備의 價格上昇과 오꺼나와의 防衛經費가 計上되어 있고 裝備의 調達額이 第3防의 約3倍로 增加되어 있다. 陸上自衛隊의 裝備를 例삼아 보면 3次防의 完成時에 美國의 中古供與品이 46%를 占하게 되어 있으나 4次防 段階에서 이들 裝備는 이미 20餘年을 經過하고 있으므로 그것을 거이 半減하여 國産化하기로 計劃되어 있다. 艦艇에 있어서는 4防에

있어서 量的인 增加와 더불어 質的으로도 近代化되어 가며 調達量의 三分之一이 更新키로 되어 있다. 航空機의 調達도 3次防에 比하면 顯著히 增加되며 그 約 8割이가 更新되기로 되어 있다. 研究開發費도 約 1,750 億円で 予想되어 3次防의 三倍以上으로 되며 4次防 總額의 3.3%로 되어 있다.

여기에서 우리는 4次防의 質的인 變化를 防衛産業과의 密着關係에서 찾을 수 있다. 4次防의 特徵이 裝備의 國産化에 重点이 두어 졌다는데 있고 또 이 事實때문에 産軍複合體에의 危險이 日本 國內에서도 指摘되고 있다. 3次防은 그 結果에 있어 中古武器를 國産武器로 代替하는 計劃에 不過하였고 新武器의 購入에 充當된 經費는 52%에 不過하였으며 나머지는 修理에 不過하였다.

4次防에 있어서는 主要裝備인 艦艇航空機, 戰車, 彈藥等に 充當되는 것이 約 1兆 5,000 億円で 予想되어 3次防의 4,900 億원에 比하면 3次防의 約 3倍의 需要가 있으므로 評價되고 있는데 이 巨額의 金額이 防衛産業에 投入되므로 三菱等の 大企業에의 発注가 4~5倍 増大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것을 物量面에서 본다면 4次防에서는 護衛艦이나 潜水艦을 비롯하여 合計 86隻, 10万3,000.吨이 國産化되기로 되어 있어 過去 19年間に 蓄積된 建造量에 相当하며 따라서 過去에 年間 建造量이 1万屯 程度였든것이 4次防부터는 2万屯으로 倍增하게 된다. 이와 같이 4次防이 3次防의 3.2倍로 防衛産業에 武器를 発注하므로 自衛隊와 防衛産業界와의 一体感이 더욱 커질 可能性을 보여주고 있다.

武器에서도 特히 問題視되는 것은 航空機이다. 4次防에서는 F4E

팬텀機 80機를 購入하기로 되어 있으므로 金額上의 問題에서 본다면 팬텀病이라고도 할수 있거니와 보다 重要한 것은 航空機工業의 特性에 関한 것이다. 戰後에 日本은 航空機工業이 再開된 以來로 1970年까지의 實情을 보면 民需가 19.6%, 輸出이 7.5%인데 反하여 防衛庁需要가 72.5%로 되어있다. 이와 같이 航空機가 日本에서 戰略産業이라고 하였으나 其實 그 市場은 防衛庁에 依存하여 왔다. 따라서 지금 現在로서는 自衛隊의 發注가 中止되면 航空機工業은 即刻적으로 倒産될 与件에 있다. 이런 意味에서 産軍密着에 있어서의 航空機의 役割이 至極히 크다고 할수 있다.

이것은 4次防이 重点을 두고 있는 裝備의 國産化의 中核이 航空機에 集中되어 있다는 事實에서 能히 알수 있다.

軍部와 防衛産業界를 密接히 連結시키는 航空機 다음의 또하나의 接結點이 되는 것은 技術開發에 関한 것이다. 4次防에서는 裝備의 自主開發과 國産化를 더욱 推進하여 라이선스生産에서 轉換하여 自主生産에 重点을 둘것을 基本方針으로 삼고 있다. 따라서 3次防에서의 國産化率이 50%程度였는 것을 4次防에서의 80%程度로 引上시키기로 되어있다. 이렇게 되면 技術研究開發에 重点이 두어 지게 되어 多額의 研究開發費가 投入되게 됨은 當然之事가 아닐 수 없다. 美國의 研究開發費가 國防予算의 20%를 占하고 있는데 反하여 日本은 3次防에서는 不過 1.8%, 489億에 不過하였는데 日本의 防衛關係者의 不滿이 있었다. 그러나 4次防에 있어서는 그 防衛庁原案에서 본다면 研究開發費가 一挙에 急増하여 1,750億 円으로 3次防의 3.6배이며 國防予算에서 3.5%를 占하고 있다.



総経費面에서 4次防이 3次防의 2.2倍이므로 이 3.6倍라는 数值는 4次防에서 技術開發을 얼마나 重要視하고 있는나를 示唆한다. 이 大幅増額은 研究員의 大幅増員을 實現하지 않는 限 予算을 消化하는 것을 日本의 専門家들 自身이 疑問視하는 反面에 日本의 実情에서 보아 研究員의 大幅増加를 要望하는 情勢에도 있지 않다 고 한다. 이렇게 되면 研究開發費의 増額は 防衛産業의 研究分野에 投入될 수 밖에 없으며 따라서 自主적인 高度의 大型技術開發의 必要性에 切迫되고 있는 大資本家로서는 防衛費라는 國家資金의 負擔으로 새로운 技術開發의 推進이 可能하게 된다 그結果 防衛産業者 사이에 技術開發을 爲한 受注戰이 展開되고 있다. 왜냐 하면 防衛産業者로서는 萬一에 4次防에서 새로운 技術의 開發에 参与하게 된다면 다음의 5次防에서의 生産이 予約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防衛産業자들이 4次防의 原案에서 가장 關心이 集中되고 있는 것은 이 技術研究開發의 項目이다 뿐만 아니라 技術開發에 있어서의 리더십은 漸次的으로 軍部에서 부터 産業界의 손으로 넘어가고 있다. 왜냐하면 電子工業을 中心으로 하는 軍事技術의 高度化에 依하여 새로운 技術의 發展方向을 想定하는 技術予測의 能力이 軍部に 있지않고 産業界에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새로운 技術開發의 主導權이 軍部에서 産業界로 넘어 가므로서 將次 5次防의 基本方向을 決定하는 것이 軍이 아니라 産業界가 될 可能性을 보여주고 있다. 極端的으로 다시 말해서 防衛計劃의 基本은 防衛産業과 그것을 代表하는 経団聯 防衛生産委員會가 作成하고 軍部가 이것을 事後에 形式的으로 承認하는 關係에서 軍부와 産業界의 關係는 密着되어 갈것이다.

#### 4. 防衛産業의 展望

日本이 防衛産業의 規模를 擴大하므로서 必然的으로 直面하는 問題는 武器輸出의 問題이다. 그間에 있었던 日本의 武器輸出의 実績을 보면 1965年度에는 3億 1,500万円, 1966年度에는 2億 4,200万円, 1967年度에는 7,700万円, 그리고 1968年度에는 5,900万円으로 減少되고 있다. 그리고 現在 日本은 表面上 武器輸出에 慎重한 態度를 取하고 있으나 이미 擴大過程에 突入한 防衛産業의 規模와 性格에서 본다면 国内需要에 対応하는 以外에 美国에 依한 武器購入增大 要請에 따르기 爲하여서도 빠르면 5年以内に 武器輸出에 拍車를 加할 것으로 내다 보인다. 海外派兵이 憲法上 禁止되어 있으므로 닉슨·독트린에 따르는 美国의 役割代行에 對한 期待에 따르기 爲하여 武器生産에서의 役割代行의 可能性을 示謂하기 始作한 日本国内의 論調가 公公然하게 나오기 始作하고 있다.

現在에 있어 日本은 武器의 海外輸出을 爲하여 輸出貿易管理令에 依하여 通産大臣의 承認을 要하기로 되어 있고 이 承認은 케이스·바이·케이스로 審査하기로 되어 있는데 이 境遇에 原則적으로 다음과 같은 세개의 境遇에는 承認하지 못하게 되어 있다. 即 ① 共產諸國에 對한 輸出 ② 유엔決議에 依하여 武器의 輸出이 禁止된 國家에 對한 輸出 그리고 ③ 國際紛争의 當事國 또는 그 憂慮가 있는 國家에 對한 輸出의 境遇가 그것이다. 이것이 所謂 日本의 「武器輸出 三原則」이다.

그러나 이 세개의 原則은 解釋如何에 따라 매우 伸縮性을 가지며 그 中에서도 特히 세계의 原則인 「國際紛争의 當事國 또는

그 憂慮가 있는 國家」에 對한 것은 그 解釋問題를 둘러싸고 매우 伸縮的인 差異를 나타낼수 있는 項目이다. 武器輸出 三原則은 擴大解釋을 하기에 달려서는 一切의 武器輸出도 禁止할수 있으나 이에 對한 日本政府側의 公式 解釋에 많은 變化를 보여주어 왔다.

即 池田首相은 直接 人間을 殺傷하는 一切의 武器의 輸出은 原則적으로 認定하지 않는다는 嚴格한 方針을 取하였다. 그러나 佐藤首相은 그 態度에 있어 相當한 變化를 보여주기 始作했다. 即 佐藤首相은 1967年 4月 「武器輸出에 關한 政府統一見解」에서 自衛의 限度를 逸脫하지 않는 範圍의 武器는 輸出할 수 있으므로 平和主義에 徹底한 限 憲法 第9條에 違反하지 않으며 따라서 武器輸出의 三原則에 該當하는 境遇를 除外하고 武器의 輸出이 可能하다는 要旨의 見解를 發表하였다. 原來 武器輸出의 三原則이 武器輸出의 禁止를 爲한 것이 었다면 佐藤의 發言은 그러한 禁止原則속에 可及的이던 輸出의 可能性의 正當化를 摸索하려는 態度로 變化하고 있음을 示唆한다.

뿐만 아니라 또 佐藤은 69年 2月 12日의 衆議院 本會議에서 「平和憲法の 基本精神에서 보아 武器의 輸出을 禁止하라는 論議도 있으나 平和憲法 下에 우리가 自衛權을 가지고 있으며 自衛權을 爲하여 우리가 外國에서 武器를 輸入하고 있는것과 꼭 마찬가지로 他國도 自衛權을 가지고 있으므로 武器의 輸出에 慎重을 期할 必要는 勿論 있다고 하더라도 輸出을 絶對로 認定하지 않는다는 것은 지나친 생각이다」는 要旨의 答弁을 하겠다. 이것은 原則論上 武器輸出에 있어서 慎重을 期한다는 것에 對해서는 首肯이 가나 突

際問題로서 他國의 自衛權 行使에 要하는 武器輸出問題는 正當한 別個의 問題로서 處理되어야 한다는 것을 含蓄的으로 示唆하는 것으로 理解함이 妥當하다. 이러한 變化趨勢에서 본다면 平和憲法과 的 關聯性에서의 自衛力의 增強의 正當性 與否에 對한 防衛論議가 이미 사라졌듯이 이러한 武器輸出禁止의 三原則도 主客觀的인 情勢의 變化에 따라 本質的인 變化를 가져올 것으로 豫想된다. 따라서 이러한 意味에서 본다면 日本이 생각하는 韓日間의 가장 바람직한 防衛協力の 形式이 바로 우리 韓國을 그들의 武器輸出市場으로 보는 武器輸出로서 理解된다. 이미 論한 바와 같이 施設과 研究開發에 對한 投資를 增大시켜 나옴에 있는 日本의 防衛産業의 實情에서 본다면 狹少한 國內市場의 突破口를 찾아서 코스트·다운을 實現하기 爲하여서는 武器輸出問題가 가장 重要한 問題로서 提起된다. 이미 1964年度에 行하여진 「實態調査」에서 「防衛機器의 輸出은 從來에 外交上의 制約때문에 至極히 困難視되어 있으나 코스트輕減이나 企業力의 養成의 見地에서 無視할 수 없으며 國家로서는 外交上의 支障을 可能한 限 排除하여 強力한 措置가 取해질 것이 要됨된다」고 하여 防衛産業界에서 武器輸出을 바라는 소리가 漸高해 지고 있다.

## 四. 日本의 對韓政策의 展望

### ~ 對韓防衛協力의 展望 ~

#### 1. 韓日間의 懸案問題

1965年의 韓日協定의 締結에서 보듯이 戰後의 韓日關係의 正常化 및 이에 따르는 韓日關係의 展開는 美國의 亞細亞戰略構想에 따르는 우리의 對美關係의 延長으로서의 性格이 같다. 韓日關係의 正常化는 美國의 對韓政策의 觀點에서 본다면 戰後에 韓國에 對하여 負擔해오던 軍事的 經濟的 負擔의 相當한 部分을 日本에게 移讓시키기 爲한 것인 反面에 또 美國의 對日政策의 觀點에서 본다면 亞細亞政治에 對한 日本의 現實的인 寄與를 誘導하기 爲한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點에서 본다면 닉슨·독트린은 韓國에 對한 軍事的 經濟的 負擔과 亞細亞問題에 對한 日本의 積極的인 寄與責任을 公式的으로 制度化하기 爲한 美國의 對亞細亞政策의 努力의 表現이기도 하다. 그러나 國交正常化 以後의 韓日關係에서만 보더라도 韓日間에는 國家的 立場의 差異에서 적지않은 問題가 있으며 그 主要한 것을 들면 다음과 같다. 卽 防衛協力問題를 비롯하여 經濟協力問題 貿易不均衡問題, 在日僑胞 永住權申請問題, 朝總聯 國籍變更問題, 在日僑胞北送問題, 對北僑交流問題 그리고 對中共接近問題 등이 그것이다. 그러면 防衛協力問題는 다음 項目에서 取扱하기로 되어 있으므로 여기에서 省略하고 其他의 主要問題를 살펴보기로 한다. 이들 問題에 對한 檢討는 日本의 對韓政策의 基本姿勢를

理解하는데 不可欠한 實証的인 掘根資料가 된다.

먼저 經濟協力の 現況부터 보기로 한다. 1965年 12月 18日에 發効된 韓日請求權 및 經濟協力協定은 無償 3億弗, 財政借款 2億弗 그리고 商業借款 3億弗 以上으로 되어 있으나 1967年에 있는 才1次 韓日關係會談 以來 그導入実績에서 본다면 69年 現在 無償이 1億 1,660萬弗, 財政借款이 7,540萬弗, 商業借款이 3億 5,640萬弗 그리고 技術協력이 100萬弗로 되어 있다. 여기에 韓日間의 經濟協力は 첫째로 67年, 以來 財政借款의 確認額이 大幅減少된데 그 問題點이 있음은 勿論 따라서 둘째로 利率이 높은 商業借款이 그 主體로 되어있고 또 셋째로 商業借款 亦是 A I D條件 보다도 不利하다는데 그 問題點이 있다

貿易關係에 있어서도 不均衡이 極甚하여 問題點으로 되어 있다 1969年 現在 우리의 對日輸出이 1億 3,300萬弗, 對日輸入이 7億 5,400萬弗로 되어 있어 輸出入關係가 5.7對1이라는 不均衡을 나타내고 있다. 그 不均衡의 要因에는 日本側의 1次商品에 對한 非關稅障壁을 비롯하여 加工品에 對하여 高率關稅에 依한 輸入制限 乃至는 抑制를 加하고 있으며 셋째로는 韓國의 工業化 促進政策에 따르는 原資材의 輸入增加가 있다 그리고 基本的으로는 零細 中小企業의 保護를 理由로 韓國側의 要求에 消極的인 態度를 取하고 있다는데 그 要因이 있다.

在日僑胞의 永住權 申請問題에 있어서는 有資格者 總數 559,147名, 目標 391,403名, 申請數 232,973名 (70年 10月末 現在)

그리고 許可數 184,232 名을 그 現況으로 하고 있다. 67 年에  
있는 才 1 次 実務者 會談以來로 數次에 걸쳐 実務者會談이 있었으  
나 日本側이 書類審査에 있어서 嚴格할 뿐만 아니라 朝總聯의 妨  
害工作 그리고 居留民團側의 啓蒙活動의 不振等を 要因으로 하여  
難航을 거듭하고 있는 実情이다.

65 年 朝總聯이 強力한 運動을 展開하므로써 提起된 朝總聯의  
國籍變更運動에 關한 問題가 있다. 朝總聯의 底意는 日本政府로  
하여금 北傀를 政治的으로 認定케 하고 韓日 法的地位協을 實質的  
으로 無効化하며 朝總聯 自体의 組織을 公고히하는 反面에 韓日契  
係를 離間시키려는데 있다. 이에 대한 日本 法務省의 態度는 原  
則的으로 國籍變更를 認定하지 않는데 있으나 但 事務取扱上의 過  
誤로 認定될 경우와 本人의 意思에 따르지 않고 才 3 者에 依하여  
「韓國」으로 記載 되었다고 認定되었을 境遇에는 訂正을 許可하기  
로 되어있다. 朝總聯과 日本 革新系의 活動이 強化되고 있는데 다  
가 一部 保守系의 市長도 이에 同調하는 傾向이 있다. 그리고  
在日僑胞의 北送問題에 있어서도 日本側이 國際赤十字社를 통한 查  
証發給을 主張하는데 對하여 北傀側이 從前과 같이 日本의 直接發  
給을 要求하여 意見이 對立하여 왔으나 앞으로 繼續하여 北送이  
實現될 것으로 予想된다.

日本의 對北傀交流는 交易을 비롯하여 朝總聯系의 再入國許可, 北  
傀渡航制限 緩和, 商品展示會開催 許容 그리고 北傀 体育人의 入國  
許容에 이르기 까지 多様하다. 日本의 對北傀 交易은 다음 表에

서 보는 바와 같이 增大一路에 있으며 앞으로는 더욱 增大될 傾向에 있다.

日本・北傀交易

年 度	对北傀輸出	对北傀輸入	合 計
6 5	16,505	14,723	31,228
6 6	5,016	22,692	27,708
6 7	6,370	29,606	35,776
6 8	20,748	34,032	54,816
6 9	24,159	32,186	56,345

마지막으로 日本의 对中共交易의 現況을 보면 다음과 같다.

年 度 別	对中共輸出	对中共輸入	合 計
6 4	152,739	157,750	310,489
6 5	245,036	224,705	449,749
6 6	315,150	306,237	621,387
6 7	288,294	269,439	557,733
6 8	325,439	224,185	549,624
6 9	390,803	234,540	625,343



對中共 交易에 對한 日本政府의 政策은 政經分離의 原則에 依한 交易擴大의 推進에 두어져 왔다. 이에 對하여 中共側의 態度는 政經不可分の 原則과 周四原則으로 集約되어 있다. 中共의 政經不可分の 原則은 1958年에 ① 中國敵對政策의 拋棄. ② 두個의 中國政策에의 不加担 그리고 ③ 日中關係의 正常化의 不妨害로서 提示되므로서 政治三原則이기도 하다. 그리고 近者에 提起된 周四原則(70.4.19)은 ① 韓國.台灣을 돌고 있는 企業 ② 韓國.台灣에 投資하고 있는 日本企業 ③ 越南. 라오스. 캄보디아에서 美國의 「侵略戰爭」을 돌기 爲하여 武器를 輸出하는 企業 그리고 ④ 日本에 있는 美國과의 合併会社等과는 去來치 않겠다는 原則인데 이에 對하여 日本의 大企業들이 漸次的으로 기울어져 가고 있다.

## 2. 日本의 對韓防衛協力の 姿勢와 展望

앞에서 言及한 韓日間의 主要問題에 對한 日本의 姿勢가 곧 그의 對韓 防衛協力の 姿勢에 對한 基本的인 制約要因으로 되어 있다고 理解하여도 過言은 아닐 것이다. 韓日間의 防衛協力の 展望을 檢討하기 爲하여서는 問題를 보다 더 具體的인 次元에서 分析하기 爲하여 基本姿勢로서의 政策問題 그리고 보다 具體的인 事項으로서의 作戰問題와 防衛産業問題 이를테면 政策. 戰略 그리고 作戰과 防衛産業이라는 세가지 次元에서 檢討하는 것이 보다 合理的인 것이다.

그러면 먼저 基本姿勢의 理解를 爲하여 政策, 戰略面에서 부터 檢討하기로 한다. 1965年 韓日協定の 締結에 따르는 韓日關係의 正常化와 密接化는 韓日間의 兩國關係로서의 側面과 兩國의 對美關係의 延長으로서의 側面的 두가지를 지니고 있으나 當時의 國際政治的 側面에서 본다면 前者로서의 關係 보담도 後者로서의 關係의 側面이 더 甚다. 韓日協定은 戰後 美國의 對韓政策의 變化의 才 1段階임과 同時에 韓日間의 새로운 關係의 才 1段階로서 對美紐帶를 基軸으로 韓美日의 三國의 關係를 三角的으로 連結해 놓았다 그리고 닉슨.독트린은 戰後 美國의 對韓政策의 잠정적 終結로서의 政治的 意義를 多分히 지니면서 美國의 對日政策의 變化를 意味가운데 韓日關係의 才 2段階를 區劃하는 反面에 韓美日의 三角關係의 持續的인 發展을 確認하면서도 우리의 安保紐帶의 半徑을 可及的이면 對美關係에 있어서 보담도 對日關係에서 接近 縮小시키려는 政策意圖의 表現이기도 하다 다시 말해서 韓日協定을 才 1段階로 그리고 닉슨.독트린을 才 2段階로 하여 韓日關係는 韓日兩國의 對美關係와의 틀속에서 더욱 緊密해 질 수 밖에 없는 狀況에 이르고 있다. 이런 意味에서 본다면 닉슨.독트린은 그間 對美體制에 依한 美國의 保護下에 國力의 成長을 본 日本에 對하여 그 스스로의 防衛를 爲한 自体負擔의 增加 및 地域防衛에 對한 日本의 相當한 責任引受에 對한 問責이기도 하다. 닉슨.佐藤共同宣言에서 韓國의 安全이 日本의 安保를 爲하여 緊要하며 台灣의 安全이 日本의 그것에 對하여 重要하다고 確認한 것은 美國의 對日政策의

觀点에서 본다면 韓國과 台灣을 中心으로 하는 極東의 地域防衛 에  
대한 美日共同関心を 申明하고 이에 대한 日本의 責任을 公式化한  
것이다. 現實적으로 地理的인 与件에서 보아 우리 韓國이 日本에  
對하여 占하는 戰略的 價値는 至大하다. 이러한 意味에서 보더라도  
日本 自衛隊의 作戰計劃에 있어서 우리 韓國이 그 範圍속에  
包含되어 왔다는 것은 當然한 事實이 아닐 수 없다.

日本의 防衛白書에 指摘되고 있는 「侵略의 早期排除」의 対象地  
域은 우리 韓國을 軍事地域으로 보고 評價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1963年의 「三矢計劃」은 우리 韓國을 作戰地域으로  
보고 38線이 突破되었을 境遇를 假想한 圖上作戰演習이 있다는 것  
은 우리의 注目を 끄는 事實이 아닐 수 없다. 또 1964年의  
「飛竜作戰」도 南韓이 개리라戰化 되었을 境遇를 假想하여 試圖한  
圖上作戰演習이었다. 그러나 鑿는 이러한 日本의 韓國에 對한 作  
戰地帶로서의 軍事的 関心の 表明이 韓國의 防衛를 위한 것이냐  
不然이면 日本 自体의 防衛를 위한 것이냐의 問題가 있다.

닉슨. 佐藤共同宣言에 對한 美日間의 態度에는 相當한 갭이 벌어  
지고 있다. 共同宣言에 對한 美国側의 態度는 韓國이나 台灣의 防  
衛를 爲한 經濟的 軍事的 負擔引受에 對한 日本側의 意圖의 確認  
으로 보는데 主된 関心이 주어져 있으며 또 그럴 수 밖에 없다  
그러나 國內政治的 与件이나 中共. 北傀를 비롯한 共產圈에 對한  
對外政治的인 姿勢에서 보아 日本의 이에 對한 態度는 美国의 期  
待에 對한 拒否的인 주저로 나타나고 있다. 美日安保体制下에서

自體의 防衛負擔에서도 가벼운 立場에서 高度經濟成長을 持續해온 日本의 基本政策의 目標은 美國의 勢力이 亞細亞에서 後退하는 가운데 中共과 競争하여 그의 影響力을 牽制하면서 繼續하여 經濟的 實利를 追求하는데 才1次的인 関心이 두어져 있다. 따라서 日本으로서의 尼遜, 佐藤共同宣言에 있어서 韓國의 安全이 日本의 그것에 對하여 緊要하다고 確認하기는 하였으나 이것을 韓國防衛를 爲한 經濟的 軍事的 責任에 있어서 美國의 代役을 한다는 軍事의 共同利害에서 反應하기 보담은 可及的이면 負擔없이 自國의 進出을 可能케 하기 위한 政治的 條件으로 消化하고자 한다. 다시 말해서 韓半島에 對한 政治的인 歷史的 利害를 美國과 더불어 公式的으로 確認한 것으로 消化하고자 한다. 日本은 歷史的으로 中國이나 蘇聯과 더불어 韓半島에 對한 利害國으로 登場하여 韓半島가 그의 敵對勢力에 依하여 支配되는 것을 拒否하고 有利한 條件에서는 韓半島의 支配를 前提로 自主, 獨立을 主張하는 反面에 不利한 條件에서는 分割政策을 企圖하였다. 그러나 戰後에 있어서는 韓半島에 對한 日本의 立場은 美, 蘇, 中과는 달리 現實的으로 判異하게 不利한 條件에 있다.

美蘇는 才2次大戰을 通하여 韓國分斷措置에 參與하여 韓國問題에 對한 決定的인 發言權의 所有國으로 되어오고 中共은 韓國戰爭에 介入하므로써 休戰協定의 調印을 通하여 分斷措置에 參與하였으나 日本은 그런 參與機會가 없었다. 그反面에 日本은 65年의 韓日協定의 締結을 通하여 美日間에 韓國에 對한 傳統的인 利害를 처음으로

確認한 셈이다. 따라서 韓半島에 對한 利害國으로서의 立場의 公式化에 美蘇中 보답도 뒤늦게 參與한 日本은 그의 傳統的인 利害의 守護를 爲하여 69年의 닉슨·佐藤共同宣言을 負擔의 支払보답도 權益守護의 面에서 韓半島에 對한 利害의 公式化로서 現實化하고자 하는 姿勢에 있으며 이것이 앞에서 提起된 韓日間의 問題點으로 表現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韓國에 對한 作戰地帶로서의 日本의 關心은 美國의 期待되로 韓國防衛를 爲하여 日本이 積極的인 協力關係를 發展시키겠다는 意味에서 보답도 日本 自體의 防衛를 爲한데 才一次的인 關心이 두어져 있다.

이러한 點에서 본다면 韓國에 對한 日本의 關心은 防衛協力에 對하여서 보답도 政治的으로는 韓半島에 있어서의 現狀維持 그리고 그것을 爲한 條件形成으로서 軍事的으로는 非武裝化에 있을 것이다 韓國防衛에 對한 日本의 態度에 對한 制約要因은 國內政治的 要因만이 아니라 對外政策的 要因이 있으며 이 兩者에 있어서 長期的인 眼目에서 본다면 後者에 對한 考慮가 더 優先視된다. 日本의 國際關係 特히 對中共이나 對北傀에 對한 接近은 軍事的인 姿勢에 있는것이 아니라 政治的 接近에 그 終極的인 目標을 두고 있다. 韓日關係에서 軍事的 關係가 附加된다는 것은 日本軍國主義의 非難을 繼續해 오고 있는 中共이나 北傀로 부터의 非難要因을 增大시키며 特히 對中共 接近의 試圖에 對한 커다란 障害要因으로서 日本에 對하여 作用하게 된다. 中本의 中立化에 政策目標두는 中共과 더불어 北傀는 日本의 軍國主義를 共同으로 非難하는 가운데

美日安保條約을 비롯하여 韓日協定 그리고 日華條約의 廢棄를 主張하여 왔다. 뿐만 아니라 中共은 日本에 대하여 國交正常化의 四大條件으로서 ① 中共을 合法的인 正統政府로 認定하며 ② 台灣이 中共領土의 一部임을 承認하며 ③ 유엔의 모든 機關에서 台灣을 追放하며 그리고 ④ 台灣에 對한 모든 支援을 廢棄할것을 提示한 데 對하여 日本政府의 議會에서의 証言에서 보아 그 具體的인 時期問題는 別個로 치고 漸次的으로 原則上 이것을 是認하는 方向으로 움직이고 있다. 要는 台灣問題의 處理와 그것을 둘러싼 對美關係를 어떻게 調整할 것이냐에 問題가 남아 있을 따름이다 따라서 日本은 自衛力을 增加하고 있으나 現在로서는 集團防衛를 爲한 戰略的 一環으로서의 軍事戰略에 基本姿勢를 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 政治戰略에 優位를 두고 이에 對한 補完手段으로서의 價值賦與를 軍事戰略에 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이에 對하여 우리 韓半島의 狀況은 國際緊張의 緩和라는 外的인 狀況과는 對逆적으로 如前히 緊張이 繼續되고 있다는 點에서 先行條件으로서의 軍事戰略에서 떠난 政治戰略이 있을 수 없는 條件에 있다. 따라서 日本은 우리 韓國과는 防衛協力을 爲한 政策, 戰略의 次元에서 判異한 立場에 있으며 그런 立場의 差異의 調整이 쉽사리 實現되리라 보기 어렵다. 뿐만 아니라 美日間の 利害對立이 增大되어 日本이 그의 國力の 成長에 따라서 對美關係에 있어서 外交의 自律性的 幅을 增大시키고자 하는 努力이 培加될 수 밖에 없으므로 日本의 立場은 決코 對美關係의 延長으로서의 韓日關係라는 關係次元에서

離脱하여 對美關係와 對韓關係를 漸次的으로 分離하여 独自の인 次元에서 評價하려 할것인바 그 具體的인 時期는 日本이 그 安保를 爲하여 對美紐帶에서 떠나 独自の인 安保政策을 追求할 것이냐의 判가름을 하게 되는 時期이다. 따라서 우리는 이런 時期에 日本이 媾하기 以前에 우리의 對美紐帶를 通하여 또는 그 延長線上에서의 韓美日의 三角關係의 基本的인 틀이 破壞되기 以前에 政策·戰略面에서의 韓美日의 三國間의 差異를 調整하여 立場의 有機的인 接近을 爲한 外交的인 努力이 앞서야 한다.

이러한 政策·戰略面에서의 檢討 다음에 둘째로 提起하여야 할 防衛協力에 關한 檢討의 次元은 「作戰」에 關한 것이다. 作戰上の 防衛協力問題는 具體的으로 美軍의 自由發進에 關한 問題와 自衛隊의 海外派兵에 關한 問題로 大別된다.

72年에 오끼나와 施政權이 返還되면 오끼나와는 日本本土와 마찬가지로 美日安保條約의 適用테두리 안에 들며 따라서 오끼나와에서의 美軍의 發進을 爲한 基地使用은 事前協議의 對象이 된다. 따라서 一朝有事時 北傀가 南侵하였을 境遇에 美軍의 作戰을 爲하여서는 對日事前協議를 通한 美軍의 自由發進의 許容이 不可欠의 先行條件이 된다 오끼나와 基地의 價值는 二重的이다 그 첫째는 抑制價值이며 둘째는 一朝有事時의 作戰을 爲한 中繼基地로서의 價值가 그것이다 오끼나와가 지니는 이러한 基地로서의 二重的 價值에서 본다면 오끼나와에 많은 美軍이 駐屯한다는 것도 重要하거니와 이것에 못지 않게 重要한 것은 一朝有事時 美軍이 韓半島나 極東에서 平素에

象徴적인 兵力이 남아있는 恨이 있더라도 그 基地를 利用하여 自由로히 兵力을 展開할 수 있는 機能의 維持가 못지 않게 重要하다. 따라서 美國은 69年의 닉슨 . 佐藤共同宣言에서 佐藤과 美軍이 美日兩國의 相互의 安全保障에 必要한 軍事施設과 區域을 오끼나와에 保有할 것에 合意하였음을 밝히고 또 지난 11월에 있을 美議會에서의 오끼나와 返還協定の 調印에 앞서는 10月27日의 上院 外交委員會에서의 証言에서 로저스國務長官이 이것을 再強調하고 있다. 우리 韓國의 境遇에 北傀에 對한 中共의 派兵은 別個問題로 치더라도 其他의 어떤 形態에 依한 中共의 對北傀 支援의 可能性이 있는 限 오끼나와가 美軍의 軍事機能의 發揮을 爲하여 存続됨이 바람직함은 勿論 우리의 防衛體制를 支援 補強하기 爲한 美軍의 存在가 어떠한 形式으로도 남아 있는 것이 보다 所望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過去의 韓國戰爭이 南韓에서의 美軍의 不在 事實이 하나의 커다란 要因이 었다고 한다면 駐韓美軍의 存在와는 別個로 오끼나와에 美軍의 基地機能이 維持되는 것이 極東이나 韓國의 防衛를 爲하여 抑制機能을 다하게 된다. 美國이 닉슨 . 독트린에 依하여 海外美軍을 減縮시키고 있는 오늘날 오끼나와는 美軍의 힘을 集約化할 수 있는 唯一의 基地이다. 따라서 오끼나와는 韓國防衛를 爲하여서도 基地의 面續의 크기나 駐屯兵力의 數에 못지 않게 적어도 象徴적인 機能이나 남겨두는 것이 必要하다. 平素의 基地機能의 象徴적인 維持를 통한 抑制機能과 一朝有事時의 作戰의 展開를 爲한 中繼基地로서의 機能이 重要하다는 것이다.



오끼나와가 지니는 이 두가지의 機能 即 抑制機能과 中繼機能에서 前者는 오끼나와 返還協定에 따르는 美日間の 合意事項이며 後者는 이미 指摘한 바와 같이 事前協議事項에 屬한다. 그런데 要는 韓國防衛를 爲하여 一朝 有事時 日本이 事前協議에 依하여 美軍의 自由發進을 許容할 것이냐에 問題가 있다. 只今 現在로서 이에 對한 日本의 態度는 断定하기 어려운 點이 많다. 美日共同宣言과 때를 같이 한 美國 National Press Club 에서의 演說에서 佐藤는 「韓國에 武力攻撃이 發生하여 이에 對処하기 爲하여 日本國內의 施設·區域을 戰鬪作戰行動의 發進基地로서 使用하지 않으면 아니되는 事態가 發生하였을 境遇에 事前協議에 對하여 積極的이며 迅速한 態度를 決定할 方針」이라는 것을 밝힌바 있다. 그런데 議會가 「積極的이며 迅速한 態度決定」이란 事前協議에서 無條件 自由發進을 美軍에게 許容한다는 뜻이냐에 關하여 質問한데 對하여 日本政府側의 答弁은 그것이 危急한 事態이므로 可否를 決定을 爲하여 積極的이며 迅速한 態度를 取할 것을 意味한다고 하였다. 이 政府側의 答弁은 事前協議가 반드시 美軍에 對한 自由發進의 許容을 保障하는 것이 아님을 意味한다.

다음에 自衛隊의 海外派兵問題는 어떠한가? 日本 新憲法 才九條에 「國權의 發動인 戰爭과 武力에 依한 威脅 또는 武力行使는 國際紛爭을 解決하는 手段」으로서 拋棄할 것을 宣言하고 있다. 그러나 内外情勢의 變動에 따라 防衛論爭의 焦點이 轉移하는 가운데 憲法 才九條에 對한 政府側의 公式見解가 달라졌음은 이미 몇년 전의 일

이 다 初期의 防衛論争의 中心은 自衛隊의 違憲性 与否에 있었다. 그러나 이미 몇년 前부터 自衛隊의 違憲性 与否問題는 防衛論争에서 全히 問題視되지 않고 있으며 그 代身 自衛隊의 海外派兵問題에 그 焦點이 두어지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日本政府는 이미 自衛隊의 海外「派兵」과 「派遣」을 區別하여 軍事目的을 為한 海外派兵을 違憲이므로 不可能하나 유엔의 平和機能의 一環으로서 非軍事的 따라서 政治的인 平和目的을 為한 海外派兵은 違憲이 아니라는 公式見解를 表現해 오든 중 近者에 와서는 日本人의 生命과 財産의 保護를 為한 自衛隊의 海外派兵도 可能하다고 그 見解를 表明하기 始作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 現在의 狀況에서 본다면 一朝有事時 韓國戰爭의 境遇에 日本이 軍事的으로 介入할 可能性은 極히 적다 勿論 비록 日本이 軍事的 介入의 意思가 있다고 하더라도 最少限度 地上軍의 介入은 決코 우리가 바라는 바가 아니다.

日本의 韓半島에 對한 軍事的介入의 可能性이 적다는 것은 自衛隊의 介入이 極東에 있어서 새로운 紛争을 結果的으로 惹起시키는 要因이 될분더러 日本이 또한 그런 紛争에 휘말려 들것을 牽制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럼에도不拘하고 自衛隊의 派遣에 對한 日本政府側의 伸縮的인 態度는 美日安保体制의 将来的인 變化可能性에 따르는 日本의 立場이 事前 未定立에 基因할 것이다. 日本이 軍事的인 責任에서 外面한 채 經濟大國으로서 實利主義를 追求하는 限에 있어서 우리는 日本에 對한 直接的인 防衛協力을 期待하기 어렵다. 따라서 日本의 國際社會에서의 責任意識은 經濟技術援助의

提供과 더불어 오끼나와에 美軍基地의 維持를 許容하여 美軍의 抑制力에 依하여 間接적으로 防衛協力에 寄與하려는데 있는 것으로 보아진다. 따라서 오끼나와의 抑制機能外에 一朝有事時의 中繼基地로서의 美軍의 自由發進을 爲한 機能에는 設使 日本이 事前協議에서 應한다 하더라도 附帶條件이 따르기 쉽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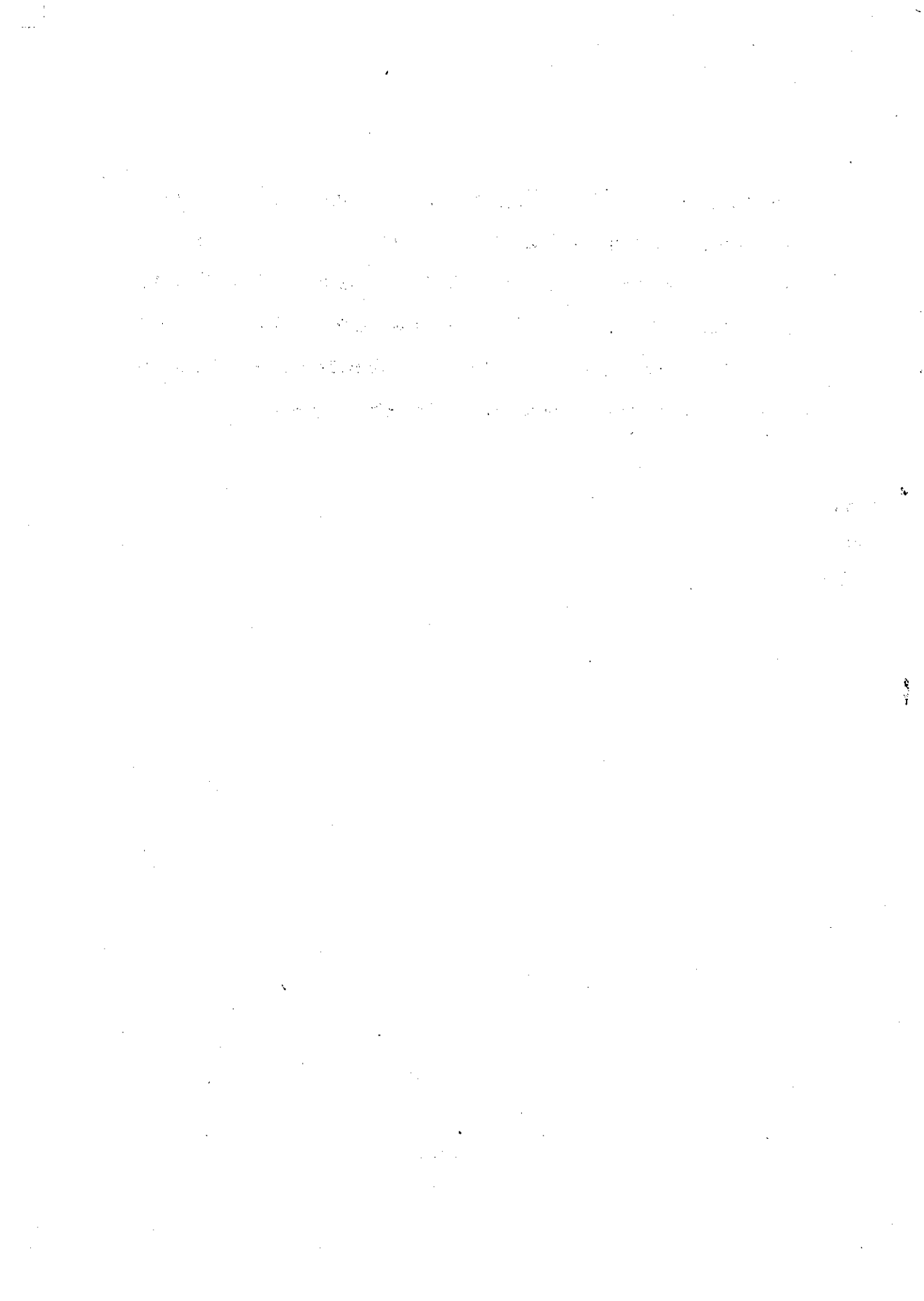
세째로 防衛協力에서 論하여야 할 問題는 防衛産業에 있어서의 協力에 關한 問題이다. 日本의 對美 防衛協력이 美日安保條約을 통한 紐帶와 基地提供에 있다고 한다면 그의 韓國에 對한 防衛協力は 非軍事적인 側面에 있어서의 經濟援助를 통한 間接적인 接近에 있다. 따라서 防衛産業面에서 본다면 分業이나 其他의 形態에 依한 直接的인 協力關係의 設定보담도 韓國을 그의 武器輸出市場으로 보는 面이 앞서고 있다 現在 日本이 가지고 있는 武器輸出三原則 即 共產圈, 유엔決議에 依하여 武器輸出이 禁止된 國家 및 紛爭當事國이나 그 憂慮가 있는 國家에 對하여서는 武器輸出을 禁止한다는 原則에 對한 態度가 마치 防衛論爭의 中心課題에 對한 態度에서 보여온 것과 같은 伸縮적인 解釋態度로 漸次的으로 變化할 可能性이 많다. 이미 日本政府는 「正當한 目的과 限度를 넘지 않는 武器輸出의 非違憲性을 示唆하고 있음은 이미 指摘한 바와 같다.

日本은 中間 數次에 걸친 自衛力整備計劃의 過程을 通하여 軍部와 産業界의 關係가 對象企業의 集中化 傾向에 依하여 密接化一路를 걸어왔다. 그러나 現在에 있어 日本의 工業生産에서 占하는

防衛生産의 比率은 0.4~0.5 %를 前後하고 있다. 이 數値는 日本 經濟가 防衛産業에 依存하고 있다느니 보답도 防衛産業이 既存의 一般産業속에서 그 育成이 試圖되어 왔음을 意味한다. 그리고 防衛生産속에서 占하는 品目別 比率을 보면 69年 現在 武器彈藥이 才一位로서 99.3% 航空機가 才2位로서 58.5%, 船舶이 才三位로서 2.5%, 石油製品이 才四位로서 0.9%, 電氣通信機器가 才五位로서 0.9%, 그리고 車輛이 才六位로 0.3%의 順位로 되어 있다. 이 두가지의 事實中에서 첫째의 事實 即 工業生産에서 占하는 防衛生産의 比率이 尙今 적다는 것은 日本의 防衛産業이 앞으로 더욱 加速化할 것을 意味하며 또 둘째의 事實 即 防衛生産 그 自体에서 적은 比率을 占하는 品目이 將次에 더욱 큰 比率을 占할 可能性을 示唆하는 反面에 보다 큰 比率 特히 近 100%에 가까운 比率을 占하고 있는 品目은 低比率의 品目보다도 斜陽企業化될 可能性이 더 많은 것으로 理解된다. 따라서 이러한 評價가 正當하다면 他品目 보답도 相對的으로 早期 斜陽企業化될 可能性이 많은 品目은 99.3%를 占하는 武器彈藥일 것으로 判斷된다.

따라서 이러한 日本의 防衛産業의 實情에서 본다면 우리가 가장 直接的인 防衛産業의 協力으로 日本에 對하여 追求할 수 있는 物件의 品目은 武器와 彈藥일 것이다. 其他 品目에서의 協力の 追求는 相對的으로 遼遠한 느낌이 든다. 이러한 武器와 彈藥에 있어서 防衛生産에서의 協力の 追求外에 가장 基本的인 것으로서는 製鐵工業에 關한 것이다.

現在 日本은 우리나라의 製鐵工業에 對한 借款供與를 우리의 自主 防衛體制의 基礎強化를 促進하기 爲한 것이 라는 立場을 取하고 있다. 卽 經濟援助를 통한 軍事援助로서의 機能化에 日本의 立場이 있는 것으로 본다. 따라서 우리는 위에 指摘된 日本의 防衛産業의 實情과 經濟援助를 통한 間接的인 防衛協力の 追求에 對한 日本의 立場을 우리에게 有利하도록 活用하여야 한다.



## 五. 結論 및 建議

- ① 美日關係는 1950年代까지는 保護와 被保護의 不平等關係였고 1960年代는 法的 形式的인 平等關係로 發表하였고 그리고 1970年代에는 보다 對等하며 競爭的인 關係로 發展하고 있다.
- ② 美日關係가 競爭關係로 發展할수록 美日安保體制에 있어서 軍事關係보담도 政治關係의 性格이 濃厚해질 것이며 따라서 美日安保體制에 相當한 變化가 이러날 것이 予想된다.
- ③ 그러나 日本이 現在 美國의 核雨傘下에 있으며 美國의 軍事科學技術의 導入이나 協調없는 防衛産業에 要하는 技術의 研究發展이 不可能하기 때문에 1980년까지는 對美安保紐帶에서 離脫하지 않을 것으로 展望되나 國內政治的 要因이나 國際政治的 要因의 作用如何에 따라서는 빠르면 才四次防衛計劃이 끝날 무렵인 70年代 中半期에 美日關係에 相當한 變化가 이러날 可能性이 排除되어 있지 않다.
- ④ 따라서 日本으로는 才四次防에 才五次防에 넘어가는 時期에 安保에 있어서 對美依存을 繼續維持할 것이나 不然이면 自主防衛路線을 抉해야 하느냐의 岐路에 설 可能性이 있다.
- ⑤ 이러한 美日關係의 性格과 展望에서 보아 우리의 對日關係는 決코 韓美日 三角關係의 基本的인 틀 속에서 그대로 維持될 可能性이 적으며 따라서 그 結果 對美關係의 延長으로서의 우리의 對日關係와 日本의 對美關係의 延長으로서의 對韓關係에 依하여 틀

잡혀진 韓美日 三角關係는 漸次的으로 韓美關係, 韓日關係, 그리고 美日關係라는 個別的인 次元에서의 國家關係로 發展하게 될 것이다  
⑥ 그리고 日本은 對美關係 및 對韓關係에서 防衛協力關係와 經濟協力關係를 分離시켜 別個的인 것으로 생각하며 韓日間の 直接的인 防衛協力を 맺을 姿勢에 있지 않으며 韓國을 그들의 防衛産業에 依한 武器輸出市場으로 보는 面이 앞서고 있으며 따라서 우리는 그들의 直接的인 防衛協力を 期待할 수 없다.

⑦ 따라서 우리는 韓美日의 三角關係의 基本的인 틀이 變質되기 以前에 이 틀을 利用하여 對日關係에서 우리의 立場을 摸索하는 것이 美日關係의 變化에 따라 韓美日의 三角關係의 基本的인 틀이 무너진 다음에 单独的인 韓日關係의 次元에서 우리의 對日關係를 定立하는 것보담 훨씬 有利하다. 그 理由는 簡單하다  
即 첫째 三角關係의 틀이 維持되는 限에 있어서는 그래도 美日關係와 韓美關係를 連結시켜 우리의 對美紐帶를 바탕으로 하여 對日關係를 摸索할 수 있으며 둘째로 日本의 對韓政策이 그의 對美政策의 一環으로서 配慮될 수 밖에 없는 條件에 依한 規制를 받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情勢判斷을 前提로 다음과 같은 政策建議을 한다  
即

① 韓日美 三角的인 協力關係에서 日本이 独自の인 立場을 고취할 可能性이 增大되므로서 對美關係의 延長 또는 그 一環으로서의 對日關係가 아니라 對日關係를 對美關係에서 分離하여 別個的인



次元에서의 對日關係의 摸索을 爲한 政策의 追求가 必要하며 그러기 爲하여서는 日本이 對美安保에서 離脫하는 時期가 오기 以前인 70年代 前半期까지 그努力에 拍車를 加하여야 한다.

② 安保를 爲한 政策·戰略·情報交換을 爲한 韓美日 三個國間의 協力關係를 隨時로 檢討하기 爲하여 韓美年例安保會議을 常設機構化하여 日本을 正式멤버로서 參加시키거나 또는 그것이 不可能할 境遇에는 日本을 옵서버로서 參加 시키도록 推進해야 한다 韓日間의 防衛協力を 爲하여서는 條約이나 協定の 形式이 必要치 않을뿐 더러 또 現在의 與件으로 보아 可能치도 않다. 따라서 우리에게 必要한 것은 常時的인 接觸을 통한 意見의 打診과 調整을 爲한 努力이며 또 이렇게 하므로서 美國이나 日本의 對韓政策을 平素에 充分히 把握할 수 있게 될 것이다.

③ 日本으로 하여금 海空軍이 才7艦隊 및 才五空軍의 役割을 分担 補完하도록 對美交涉을 強化해야 한다.

④ 經濟援助를 통한 韓日間의 間接的인 防衛協力の 一環으로 浦項製鐵을 비롯한 우리나라의 製鐵工業에 對한 借款을 增大하도록 對日交涉을 強化해야 한다.

⑤ 防衛産業에 있어서의 韓日間의 分業的인 協力を 爲하여 日本의 防衛産業에 있어서 가장 먼저 斜陽企業化할 可能性이 많은 品目인 武器彈藥을 韓國에서 生産토록 하며 그러기 爲하여 日本이 借款을 提供하도록 交涉해야 한다.

(6) 마지막으로 우리의 基本姿勢로서 自主防衛態勢의 確立을 鼓吹하며 이에 要하는 防衛産業의 育成을 爲하여 産業의 系列化를 圖謀해야 한다.